

너와의 엔딩

목차

서장	003
제1장	005
제2장	038
제3장	066
종장	076

서장

1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있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연습을 마치고 둘이서 잠시 남아 추가 연습을 진행하던 도중, 기타리스트였던 양하민이 문득 그런 말을 했다. 16살 중반, 그때는 죽음이 멀게 느껴졌던 지라 별생각 없이 살고 있었기도 하고, 항상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것도 있었기에 그 질문에 답할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갑자기?”

의아해하는 나의 반응에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남은 얼음을 오독오독 씹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당장 내일 사고로 죽어버릴지 어떻게 알아?”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기에, “그렇긴 한데, 그게 왜?”라며,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서, 그 말의 의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죽은 뒤나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서운하잖아. 그래서 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 검사검사 죽고 난 뒤의 정리도 하고 있고.”

그녀는 크로스백 형태의 책가방에서 노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의 ‘DIARY’라고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써진 걸 보고, 그 공책의 원래 용도가 일기장임을 알 수 있었다.

“원래는 일기 쓰려고 산 건데, 지금은 그냥 버킷리스트 용도로 쓰고 있어.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여기다가 적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다가 유서를 썼어. 대충 한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리셋할 건데,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봐.”

그리고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에 들어가서 본인을 피사체로 해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분명 사진관에서 돈을 주고 찍은 듯 보였지만 증명사진과는 거리가 먼, 눈을 감고 살짝 웃고 있는 게 인상적인 사진이었다.

“아마 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

그 말을 듣고 죽을 준비를 한다는 그 애의 말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불안해져서 물었다.

“설마 너, 나쁜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나쁜 생각? 뭘 말하는 거야?”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고개를 가웃거리며 그 의미를 물었다.

“자살 말하는 거야, 자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지간히 불안해야지.”

“에이, 그건 아니야. 보다시피 내 정신 건강은 아주 멀쩡해. 우울감이나 뭐 그런 건 없어.”

“그럼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매일매일을 시한부 인생처럼 사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

“시한부 인생?”

“응. 《내일의 유서》, 알아?”

“몰라.”

고개를 휘저으며 그렇게 답했더니, “웬지 그럴 것 같았어.”라며 빙그레 웃었다.

“단편소설인데, 어떤 남자가 병도 없으면서 하루하루를 시한부처럼 살아가는 내용이야. 결국 그 남자가 결말에서 진짜로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언젠가 나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죽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뿐이야.”

“그게, 정신 건강이 멀쩡한 건가?” 아까 정신 건강이 멀쩡하다는 그녀의 말과는 상반되는 말에, 나는 의아함을 느껴 그녀에게 물었다.

“사실, 널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긴 해.”

“뭐야, 그게.” 뭔가 맞지 않는 그녀의 주장에 피식 웃고 말았다.

“아무튼, 하고 싶은 일, 있어?”

“집에 가서 자고 싶어.” 솔직한 내 마음을 이야기했다. 거창하게 ‘하고 싶은 일’이랄 건 없었지만, 내 생리적 욕구는 그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 말고. 가치 있는 거.”

일시적인 잠은 깨어나고 나서의 활력을 제공해 준다는 가치가 있잖아. 그렇게 반박하고 싶었지만, 하민이도 나를 진지하게 물어본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답하기에는 조금 미안해졌다.

“글쎄, 모르겠네.”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대답할 것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기에,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뭐, 언젠가 알아서 찾아지겠지.”

하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하민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죽었을 때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나는 아직 하민이가 말한 ‘하고 싶은 것’의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제1장

1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다. 1학년 시험이 모두 끝나니 다른 애들은 풀어져서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으로 놀러 다니는 데에 열중했다. 그런 아이들과 달리, 나는 항상 그렇듯 도서관에 왔다. 부모님께 말씀드린 목적은 2학년 때의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지만 사실은 책을 읽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기에, 나는 3층의 열람실 대신 2층의 자료실로 향했다.

가는 동안에 무슨 책을 읽을지는 대충 짚어놓았다. 그때 하민이가 언급했던 소설의 저자가 쓴 작품이라면 뭐든 상관없었다. 아직 보지 못한 작품들도 꽤 있었으니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면 될 것이다.

그 애가 지금의 내 모습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싶은 일, 아직도 못 정한 거야? 이렇게 꾸중하려나.

－목적 따위 없는 인생, 이대로 죽어버려도 상관은 없겠다는 생각이, 무심코 들고 말았다.

죽음과 관련한 생각과는 별개로, 내 몸은 800번 대의 문학 서가에 서 있었다. 한국소설이 꽂힌 서가에서 그 작가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 책을 읽으러 이 도서관에 온 거지, 쓸데없는 잡념이나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아, 찾았다. 하얀 문고본의 책등에 세로로 제목과 작가명이 적혀 있는 그 소설책. 책을 책장에서 꺼내려고 검지를 책 위에 올려둔 순간이었다.

직후, 깨질 듯한 두통이 해일처럼 몰려왔다. 귀에서는 일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큰 이명이 뻗－ 하고 들렸다.

머리에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고통에 눈을 뜬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이 들어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한 내 돌발행동에 도서관은 소란스러워졌다.

상황 파악을 위해 다시 눈을 뜨니, 시야는 희미해져 있었다. 그 가운데, 사서가 급히 달려와 무언가 물었지만 웅웅거리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다.

마침내 나는 도서관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가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님을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어,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강유성 씨, 정신이 들어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내가 일어났음을 눈치채고는 내 의식을 물었다. 상황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제가 왜 병원에……?”

내 질문에 의사는 침착한 말투로 설명해 주었다.

“환자분께서는 시립 중앙도서관에서 급성 통증으로 기절하였다가, 119구급대원의 이송으로 저희 한송대학교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심되는 질병이 있는데, 잠시 뒤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심각한 질병일 수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질병이요?”

순간 당황해서 혀가 꼬일 뻔했다.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그런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설명을 들은 직후 부모님께서 응급실에 도착하셨다.

“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아빠가 의사에게 따지듯 묻자, 의사는 침착하게 모든 경황을 설명했다. 직후, 또 다른 의사가 커튼을 세차게 열고는, “검사 준비됐습니다.”라고 숨을 고르면서 말했다.

검사실에 들어갔다. 검사실 안에는 MRI 기계처럼 생긴 이상한 기계가 있었다. 그 안에 누워서, 전신에 파란 빛을 쏘었다.

그리고 잠시 나와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같이 오신 엄마는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별거 아닐 거야.”

그런 말과 함께 웃음을 던지시 지으며 엄마는 위로해 보았지만, 당사자인 나는 역시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의사는 검사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고개를 떨구고서 사실을 전달했다.

“기소병, 양성입니다.”

의사의 한 마디에 머릿속이 완전히 뿌옇게 흐려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에서 ‘뭐라고?’를 오백 번쯤 반복하고 있었다. 몇 초 뒤 정신을 어찌어찌 잘 잡고 나에게 선고된 병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기소병(氣消病).

기운 기, 사라질 소. 한자 뜻 그대로, 몸을 제어하는 기운, 즉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는 병이다.

병기 초반에는 가끔 찾아오는 기절을 제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기력은 쇠해가고, 문자 그대로 아무런 힘도, 미동도 없이 병상에만 누워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생명 유지와 관련된 장기들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할 힘마저 사라져 죽어버린다.

현대 의학으로는 원인조차 알 수 없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유명하다.

나, 죽어?

도서관에서 무심코 든 생각이, 현실로 이어졌다. 소름이 돋았다.

죽음을 처음 인지하여 머릿속이 혼란에 빠진 와중, 이성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빠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행동도 없으셨다. 그저, 동공만이 흔들릴 뿐이었다.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진료실 안은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나지막이 내뿔었다.

“그렇구나…….”

그렇게 진지하게, 슬프게 있어봤자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다는걸, 알아버린 것이다.

“보통 진단받고 나서 보통 한 달 내로 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체내에 장치를 달아 수명을 1년 정도로 늘릴 수 있으니 수술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권했다. 아빠는 사막 속에서 며칠을 걸다가 오아시스라도 본 사람처럼 의사의 손을 꼭 붙잡고, 애원하듯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아빠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어서라도 나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취가 풀려 눈을 떴다. 회복실 침대 옆에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아빠는 살면서 한 번도 성당이나 교회 같은 곳엔 간 적도 없으면서 주님을 찾고 계셨고, 엄마는 내 손을 어루만지면서 “불쌍한 내 새끼……”라고 고장 나버린 발화 인형처럼 그렇게 반복하실 뿐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것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의사가 회복실로 들어왔다.

“입원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이랑 내일 회복만 하시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의사는 차가운 기계처럼 사실만을 그렇게 전달했다.

의사의 지시하에 이틀 동안 입원 생활을 하면서 그저 시간을 보냈다. 아니, 시간을 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병에 걸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저 시체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소리는 언뜻 생각해 보면 희소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죽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 의미도 없이 죽어간다는 게 좀 꺼림직했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문득 하민이가 제안한 것이 떠올랐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만들라는 그 제안은 죽기 직전인 나에게 알맞은 것이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버킷리스트’라는 새 페이지를 만들었다. 본문에 ‘1.’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랄 게 없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태어나서부터 수동적으로 자라온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생소한 일이었다.

“모르겠다…….”

스마트폰 측면 버튼을 눌러 검은 화면이 나오게 하고는, 침대 위에 드러누웠다.

그대로 잠이라도 든 모양인지, 꿈을 꾸었다. 하민이와 단둘이 대화하는 꿈이었다.

“잘 지내?”

하민이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는 듯 물었다.

“뭘, 그냥저냥.”

“별일은 없고?”

“응. 별일 없어.”

“거짓말. 너, 기소병이라며?”

내 상식선에서 하민이가 알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꿈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

고 넘어갔다.

“응.”

“곧 죽는 병이지, 그거.”

“아마.”

“어때, 내 말이 맞지?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

“그러게. 왜 안 와닿았을까?”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동물이니까. 당연한 거야,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하긴, 그때 누가 봐도 네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을 거야.” 킁킁대며 그렇게 말했다.

“아무튼, 하고 싶은 일은?”

“유감이지만, 없어.”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무언가 창피하다는 것을 느꼈다.

“죽기 직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없을 수 있다니. 진짜로 수동적으로 살았나 보네.”

“응.” 창피함 때문에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죽은 뒤에는 아무 쓸모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놓아. 부탁이니까.”

글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죽으면 다 그만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나. 그런 내심을 말했다가는 된통 혼날 것 같아서 숨기고는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아무튼, 나머지 날들도 열심히 살아.”

그 말 한마디만을 남기고 그녀는 떠나갔다. 그와 동시에 꿈에서 깨어났다.

죽을 때가 되더니 별의별 이상한 꿈을 다 꾸네.

2

매일 잠들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한다. 내일, 아마 내일은 죽지는 않을까. 하지만 일어나 보면 사지 멀쩡하게 잘 살아 있다. 이부자리의 온기, 미처 뜨지 않은 태양, 차가운 공기. 이런 것들이 내가 잘 살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고 있다.

일어나서 해가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기다린다. 해가 뜨지 않아 방에는 초겨울의 한기가 가득하다. 학교는 병에 걸리자마자 자퇴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해방감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속감이 없어진 탓에 공허함만을 느낄 뿐이었다.

이러한 생활을 반복한 지 11개월이 지났다. 죽을 때까지 대충 한 달 정도 남은 셈이었다. 이때쯤이면 기력이 쇠해서 병상에 누워만 있는 신세거나, 아니면 화장되어 어딘가에 뿌려지거나 봉안당에 있는 신세라고, 11개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은 우습게도 빗나갔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사지 멀쩡히 잘 살아 있다. 변화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금 있다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 “이때쯤 죽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면 그대로 되어야 할 텐데. 대체 왜 지금까지도 무의미하게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매일 자살에 관해 생각한다. 어차피 죽을 거 일찍 죽자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처음에는 ‘아, 그냥 확 죽어버릴까.’라며 상상만 했었는데, 이 생각이 지속될수록 언제 죽어도 상관없도록 준비가 마쳐져 있었다. 책상 위 두 번째 서랍에는 여러 번 퇴고한 자필 유서-아마 열세 번 정도 퇴고했던 걸로 기억한다-가 있고, 마음가짐으로는 이미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추락사였다. 운이 좋으면-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생존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빌딩 높이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즉사다. 실현이 가능한 방법으로는 그게 최선이었기에 그 방법을 선택했다.

선택의 그날이 왔다. 대충 ‘코카콜라 맛있다’로 정해서 아무 날이나 선택했던 그날이 ‘오늘’이 되어 오고야 만 것이다. 뭐, 세상에 미련 따윈 없으니까 그날이 오건 말건 그리 중요치는 않았다.

굳이 집 근처에서 죽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시가지에 있는 어느 빌딩 옥상에서 떨어질 작정이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시가지로 향해, 10층 이상의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옥상으로 향했다. 웬만한 건물의 옥상은 잠겨 있었지만, 딱 한 군데 잠겨 있지 않은 곳이 있었다.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을 열고 나왔다. 고도가 높아진 바람에 살짝 추웠다.

스마트폰의 홈 화면을 켜다. 2023년 11월 9일 오전 11시 44분. 11월 9일이 내 기일이 되겠구나. 이 정도의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나는 주저 없이 콘크리트로 된 난간 위에 올라섰다. 아찔한 높이다. 아래에는 차들이 뽕뽕 달리고, 행인들은 제 갈 길을 바빠 가고 있다.

저 아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무수한 용기보다는 잠깐의 무의식이 필요하다. 살짝 정신을 놓고 한쪽 발을 앞으로 내민 뒤 무게중심을 앞으로 기울인다면, ‘어?’하는 순간 이미 몸은 공중에 있다. 아무리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도 제 의지로는 절대 쉽사리 죽을 수는 없기에 무의식을 사용해야 한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 그 사람이 설명하던 대로. 신발을 벗어놓고 저 아래로 의식을 살짝 놓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가 철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흠칫 놀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저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그런데 웬지 좀 이상했다. 분명 철문을 열고 나오면 저 아래로 떨어지려는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구조일 터. 자살하려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두고 보다니. 인정머리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

뒤를 살짝 돌아보았다. 기타 케이스를 매고 있는 어떤 여자애였다.

자연스레 뺨은 속눈썹, 전체적으로 처진 눈, 길지 않은 얼굴형, 어깨 너머까지 내려오는 장발. 어디서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법한 외모였다. 나이는 나와 비슷하려나?

그 애와 눈이 마주쳤다. 그 애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기타 케이스를 열어 기타를 꺼냈다. 그러고서는 어느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핑거스타일 형식으로 반주를 시작해, 그 위에 자신의 목소리를 끼여 노래했다.

처음 듣는 노래였다. 상황도 상황인 지라 그런 분위기가 몽환적으로 느껴졌다. 웬지 그 노래를 더 듣고 싶어서 난간에서 내려왔다. 가기 전에 듣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그 노래에 젖어 듣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나는 그 애한테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대뜸 말을 걸다니, 참

나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저기,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그러더니 그 애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자작곡이에요. 아직 제목은 없고요.”

“노래 되게 좋네요.”

“고마워요.” 내 칭찬에 그 애는 기쁜 듯이 감사 인사를 했다.

“그나저나 아까 난간 위에는 왜 올라가신 거예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니 조금 식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적당한 거짓말이랄 것이 딱히 떠오르지도 않았기에,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아, 혹시 진짜 자살?”

사실을 간파당해 흠칫 놀랐지만, 생각해 보니 그리 놀랄 것도 없었다. 10층 빌딩의 옥상 난간에 올라설 사람은 보수 공사를 하러 왔거나,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인해 자기 자신을 죽이러 왔거나, 또 아니면 그냥 미치광이거나 셋 중 하나이지 않을까. 첫 번째라고 속이자니 내 복장은 이미 그런 복장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세 번째라고 속이자니 미치광이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걸렸네요.”

“어쩐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막았어요?”

“보수 공사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차림새를 미처 보지 못했나 보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쪽으로 속였어도 됐을 텐데. 그런 후회가 들었다.

“뭐, 어쨌든 죽으려고 하지는 말아요. 세상은 아직 살 만하니까.”

나에겐 과하게 낙관적인 말이었다. 그런 말에는 이미 질려버린 터라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쪽과 달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는 삶의 의지가 충만한데도 곧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한부 환자라든가.”

“아—” 말문이 막혔다. 시한부 환자임에도 나는 죽고자 하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조금 당황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어요?”

“예? 그게 무슨…….”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저를 위해서’ 살아 달라고?

“사실 저, 시한부 환자거든요.”

“예??”

어라, 같은 처지였던가. 놀란 감정 다음으로 찾아온 것은 신기함이었다.

“기소병이라고, 아세요? 희귀병이라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알아요. 저도 같은 병 환자니까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 애는 놀랐다는 얼굴을 하다가, 이내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표정 관리를 잘하는 여자구나, 싶었다.

“저는 이세연이라고 해요. 나이는 18살이고요.”

세상에 이런 우연도 없을 거다. 나이도 같고, 같은 병으로 곧 죽는다는 것도 같고.

“강유성이예요. 그쪽이랑 동갑이네요.”

“동갑이었어요? 그럼 말 놓는 거 어때요?”

“뭐, 내키신다면.”

“그럼 잘 지내보자.”

세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손을 뺐었다. 악수의 의미였다.

—아무래도 날을 잘못 잡은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자살은 생각만 할 뿐, 실행에 옮기는 일은 없었다. 매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차피 시간 되면 알아서 죽는데 뭐 하러 내 힘을 들이냐는 일침이 마음 어딘가에서부터 날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에서 숨만 쉬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바깥 공기 좀 마시고 오라는 아빠의 말씀이 들려왔다. 아빠의 말씀대로 집 밖을 나와 걸어서 공원에 도착했다.

그렇게 한참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라, 저번에 그 여자애가 불렀던 노래랑 같은 노래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가보니 세연이가 벤치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 한편, 아예 자리를 잡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후자의 경우에 속해서, 옆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노래를 듣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내 쪽을 스윽 보고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어! 너, 그때 옥상에서 개 아냐?”

“안녕.”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름이 뭐더라? 강…… 아 맞아, 강유성, 맞지?”

“응.”

“와, 여기서 다 만나다니 진짜 반갑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뭐, 대충? 그냥 살아만 있었어.”

“숨만 붙어 있었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후훗, 하고 웃었다.

“그래도 살아 있으니 다행이긴 하네. 그래서, 삶의 의지는 생긴 거야?”

“아니, 잘 모르겠어.” 솔직한 생각을 담아서 그렇게 말했다.

“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꽤 낙관적인 말에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저나 계속 그때의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화제를 돌릴 생각으로 세연이의 무릎에 있는 기타에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기타네.”

“응. 병의 존재를 안 이후로 매일 연습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에서 캠퍼스 노트를 한 권 꺼냈다.

〈버킷리스트〉

노란 표지에 검은 네임펜으로 그렇게 쓰여 있었다. 드라마나 소설 같은 서사 매체에서 시한부 환자가 등장한다면, 그 캐릭터가 할 법한 클리셰 같은 걸 따라 하기라도 하는 걸까?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나서 여기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날 때마다 적어서 수행하고 있거든. 아, 너도 이거 해보는 거 어때? 살아갈 의미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시도해 본 적은 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랄 것도 딱히 없고.”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세연이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고개를 들고 버킷리스트를 가리키고는 말했다.

“그럼 나랑 이거, 같이 해볼래?”

세연이의 제안에 나 역시 고민을 해야 했다. 웬지 귀찮을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지만, 이런 거라도 하면서 뭔가를 이뤄내고 죽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접고 긍정으로 대답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할까?”

아침 7시라, 나한테는 그 정도면 새벽에 가까웠다. 따지자면 해가 살짝 뜬 새벽 정도려나. 그런 느낌이라서 나가기 귀찮았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내가 일어날 수나 있을지 의문인데.”

“모닝콜 해줄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애의 행동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었다.

모닝콜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약속을 기약하며 우리는 헤어졌다.

다음 날, 스마트폰이 계속 부웅 하고 울려서, 잠에서 깨어났다. 세연이가 전화를 건 것이다. 아직 6시 반. 이른 시간에 왜 전화를 걸었을까. 그런 의문과 불만 사이의 불편한 느낌을 받으며 전화를 받았다.

“잘 잤어?”

“응.” 막 깨어나서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편한 옷차림으로 어제 그 공원으로 와.”

“무슨……” 뭐라고 쏘아붙이려고 했을 때, 어제 한 약속이 생각나서 “아, 맞다. 알았어.”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럼 좀 이따 봐.”

전화가 끊어졌다. 이불을 걷어차고 몸을 일으켰다.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대충 세면을 끝내고 나오니 거실에서 주무시던 아빠와 눈이 마주쳤다.

“어디 가?”

“약속.” 대충 그렇게 대꾸하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입으려는데, 아빠가 다시 말을 거셨다.

“이 시간에?”

“운동이라도 하려고.”

잠시 고민하시더니,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걱정하듯 말씀하셨다.

“응.”

방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닝복을 입고서 집을 나왔다.

공원까지 걸어가는데, 낮이면 번잡했던 거리가 조용했다. 웬지 이질감이 크게 느껴져 빠른 걸음으로 공원에 갔다.

공원에 도착했다. 세연이가 보이지 않길래 전화라도 걸까, 하던 차에 입구에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라며 칭찬하는 세연이에게 나는 궁금해져 물었다.

“근데 이 시간에 뭘 하려는 거야?”

“조깅.” 간단하게 대답했다. 다시 세연이의 옷차림을 보았다. 뒤로 질끈 묶은 머리, 트레이닝복, 헤어 밴드. 딱 봐도 운동하러 온 여자애였다.

“체력도 기르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 아냐?”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지.”

“혹시 알아? 조깅으로 병이 나을지.”

‘설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다.

“그럼 빨리 뛰자.”

세연이는 구보로 공원길을 뛰었다. 그 애를 따라서 나도 뛰었다.

공원의 규모가 좀 컸기에 한 바퀴만 돌았을 무렵에 이미 체력을 거의 소진했었다. 숨이 헐떡거리고 심장은 마구 펌프질했다.

“이젠…… 한계야…….”

그렇게 쥐어 짜내 말하고는 벤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벌써 퍼져버린 거야?”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는 세연이에게, 나는 손사래를 치며 “무리, 무리.”라고 반복했다.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세연이도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생수병 하나를 툭 까서 나에게 건넸다. 받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체력, 진짜로 안 좋은 거 아냐?”

그나저나 이 공원 정도라면, 적어도 1.5킬로미터는 되지 않을까?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뛰었으니 체력이 바닥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대충 1.5킬로미터를 안 쉬고 뛴 거 아냐?”

“그것도 못 뛰면 어떡해?”

“난 누구랑 다르게 저질 체력이라서.”

“체력은 길러지는 거니까, 같이 매일 조깅하다 보면 길러질 거야.”

“매일??”

이 짓을 매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되묻는 내 말에 그 애는 당연하다는 듯이 “응.”하고 대답했다. 솔직히 하기 싫었다. 하지만 그녀의 배려를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그저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내일 또 보자.”

라며, 그 애는 공원 밖으로 나갔다.

여느 때와 같이 공원길을 조깅하고 나서, 벤치에 주저앉아 생수를 들이켰다. 처음에는 공원을 한 바퀴 뛰는 것조차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2주 정도 이걸 매일 아침 반복하니 체력이 두

배 상승했는지 두 바퀴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 4분의 1 정도 마시고 같이 고생한 세연이에게 페트병을 넘겼다. 헉헉대던 그 애는 물을 단숨에 남긴 것의 반절을 들이켰다. 이젠 나보다 체력이 약해진 건가?

“아침부터 갈증 때문에.”라며, 지친 얼굴로 히히 웃는 그 애의 모습에, 이게 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었다.

“버킷리스트, 근데 이게 다야? 조깅이랑 기타.”

물병을 넘겨받고서 문득 궁금해져 물었다.

“설마.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한 거, 리스트에 있는 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야.”

“그런데 왜 안 해?”

“딱히 기회가 없어서. 왜, 해보고 싶어?”

“솔직히 말하자면 궁금하기도 해.”

세연이는 후훗, 하고 웃더니 버킷리스트를 보여줬다.

“이 중에서 오늘 내로 할 수 있는 걸 골라보자.”

선택권을 넘겨받았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나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끌리는 활동이 없던 터라 눈을 감고 한 가지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루 종일 소설만 읽기’

어라, 마침 이게 걸렸네?

“너 소설 좋아해?”

“응.”

죽음을 인식한 날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을 때마다 소설을 읽었다. 특히 인상 깊게 읽었던 소설은, 역시 하민이가 추천해 준 그 소설이었다.

“좋아, 그럼 당장 도서관으로 가자.”

세연이가 내 손을 반강제로 붙잡고 이끌었다.

도착한 곳은, 내가 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쓰러졌었던 도서관이었다. 1년째 오지 않고 있었더니 오랜만이라는 감상이 들었다.

한국소설이 꽂힌 서가에 서서, 그때 보려고 했던 소설을 골랐다. 옆에서 따라오던 세연이도 내가 고른 소설과 같은 작가의 소설을 골랐다. 차이가 있다면, 내 것은 장편소설이고, 세연이의 것은 단편소설집이라는 것. 책상에 둘이서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쳤다. 옆에 누가 있든 개의치 않고 소설의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 되었을 즈음에, 그때가 되어서야 그 소설을 완독했다. 문해력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이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면 언제나 느렸다. 옆에서 두어 번을 일어서서 다른 책으로 바꿀 동안, 나는 한 권을 읽은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그 작가의 소설을 가치 있게 읽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

소설을 다 읽고 여운을 곹씹고 있는데, 배를 쓰다듬으며 그 애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살짝 무언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라도 먹자. 4층에 매점 있으니까.”

읽은 책을 원래 있던 자리에 꽂아 놓고 4층으로 올라갔다. 둘 다 생각이 같았는지 오므라이스를 두 개 시켰다. 음식이 나오고 오므라이스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나니 그녀가 말을

걸었다.

“그 작가, 되게 잘 쓰더라. 계속 내가 고른 책의 작가 것만 읽어봤는데, 왠지 빠져드는 느낌이었어.”

“그 작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야.”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라는 말을 뒤이어서, 그녀는 그 작가의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문제라는데, 확실히 그 작가는 독자를 빠져들게 하는 문제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죄다 우울한 작품만 써서 그런지 좀 기분이 안 좋네.”

칭찬을 늘어놓던 와중에, 갑자기 한 마디의 혹평을 던졌다.

“기분 좋은 작품도 썼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 반응이 다 그렇더라.”

그러는 반응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하지는 못했다.

“그 작품의 묘미는, 그 우울함 속에서 행복이나 즐거움을 뽑아내는 데에 있으니까.”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네가 그 작가 책을 세 권을 읽는 동안 한 권만 붙들고 있던 이유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작가의 소설은 그렇게 해서 본질이 나오니까.”

“역시 심오한 말이네.”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세연이가 말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 그렇게 읽어보고 싶기도 해.”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퇴식구로 쟁반을 가져다 놓았다. 매점에서 캔커피를 사서 마시고는 다시 2층 자료실로 가서 책을 펼쳤다.

폐관 시간이 다가올 즈음에 전화가 한 통 왔다. 엄마의 전화였다.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되셔서 전화하신 거겠지. 휴게실로 잠시 나와 전화를 받았다.

“어, 엄마.”

“아들, 언제 와?”

“폐관 시간에 나오게 될 거야, 아마.”

“저녁은?”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저녁 먹을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좀 이따 돌아갈 때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이나 사 먹을 생각이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 다시 자료실에 들어가 10분 정도 책을 더 읽으니 곧 폐관한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서 나가야 했다.

“오늘, 진짜로 집중해서 하루 종일 소설만 읽었네. 이런 적, 처음이야.”

도서관을 나오면서, 기지개를 켜며 세연이가 만족했다는 듯 말했다.

“하고 싶은 거, 하나 달성했네.”

그 사실을 알려주자 까먹고 있었는지, “아, 맞다!”라고 외치며 가방을 열고는 그 노트를 꺼냈다.

“뭘 하려고?”라고 묻자, 그녀는 대답을 대신해서 “펜 있어?”라고 물었다.

“아니, 없는데.”

“아, 나 있었구나.”

또 가방에서 빨간 플러스펜을 꺼내고는,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소설책만 읽기’ 항목 옆에 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다.

“아, 그거 하려고 펜이 필요했던 거야?”

“하자마자 지우면 기분이 좋거든. 성취감도 들고.”

“아, 그 느낌 알 것 같다.”

“아무튼, 오늘 즐거웠어. 나중에 보자.”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갈 길과 반대 방향으로 그녀는 떠나갔다.

집에 가는 길에 삼각김밥을 하나 사 먹으면서 거리를 거닐며,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 봤다. 세연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소설을 읽었다.

소설을 하루 종일 읽는다는 행위는 분명 예전에도 몇 번이고 있었던 행위였다. 하지만 ‘세연이와 함께’라는 수식어가 붙자,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소설을 읽는 것, 그건 분명 나에게 있어 시간을 죽이는 행동이었는데, 그녀와 함께 읽으니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한 느낌이 들었다.

4

“나, 언젠가 파자마 파티 한번 해보고 싶어.”

집에서 혼자 소설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연이가 전화를 걸어서 대뜸 그렇게 말했다. 파자마 파티라, 확실히 나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긴 하다. 애초에 친구도 많지도 않았고, 동아리 애들과도 하민이를 제외한다면 거의 데면데면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거,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야?”

“응.”

그 질문 이전에 사실 살짝 감이 오긴 했다. 나와 파자마 파티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버킷리스트를 핑계 삼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짐작했다.

그 짐작의 반응은 맞았다.

“그래서 너한테 버킷리스트를 핑계 삼아서 파자마 파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짐작의 반응 틀렸다. 완전히 직접적이었다. 핑계를 댄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다.

“직접적이네.”

“어쨌든,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다는 게 중요한 거야.”

딱히 꺼리는 것도 없었기에, 나는 흔쾌히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어차피 당장만 아니라면—당장이라 해도 약속 자체가 거의 없어 적절한 핑계는 댈 수 없기에 거절하기는 어려웠겠지만—상관은 없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오늘 밤 8시, 어때?”

이거, 너무 당장인데?

“말 나온 김에 해버리자. 솔직히 지금 아니면 할 기분이 안 날 것 같아.”

그런 막무가내의 제안에 역시 나에게 선택지는 없는 듯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든지.”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기대가 맞아떨어져 기분이 좋다는 것이 흰히 보이는 목소리로 “그럼, 좀 이따 보자.”하고 전화를 끊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왔다. 목적은 딱히 없었다. 방문을 열자마자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커피?”

엄마가 부엌에서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계셨다.

“응. 아들도 마실래?”

“아니, 됐어.”라고 거절한 뒤, 방으로 도로 들어갔다. 엄마는 후훗, 하고 웃으시더니 “아들!”하고 부르셨다. 다시 방에서 얼굴만 내놓고 엄마의 부르심에 대답했다.

“왜?”

“요즘, 안색이 좋아 보여.”

“그래?”

“응. 전에는 도통 우울하게 있더니, 요즘에는 얼굴색이 많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딱히, 잘 모르겠어.”

전혀 자각하지 못한 사항이었다. 내가 좀 안색이 밝아졌던가?

“요즘 자주 나가는데, 친구라도 만나는 거야?”

“응. 뭐, 좀 일이 있어.” 딱히 그 애의 존재를 밝히고 싶지는 않았다. 의미는 없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아 그리고, 오늘이랑 내일, 나 외박할게.”

“외박?” 갑작스러운 외박 선언에 엄마는 ‘애가 무슨 소릴 하는 거지?’라는 표정을 지으셨다.

“갑자기 웬 외박?”

“친구네가 파자마 파티를 한다네. 한 번 가보려고.”

이런 내 통보에 엄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결정하신 듯 말씀하셨다.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내일 일찍 오고.”

“고마워요.”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외박도 하고.” 대견하신 듯 말씀하시는 엄마의 칭찬에 좀 쑥스러워 그저 슬쩍 웃기만 하고 방으로 도로 들어갔다.

7시쯤 집을 나와 간단한 짐을 챙기고 세연이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다. 예전에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어진 지 5년 정도 된 아파트였다.

105동 1704호. 그게 세연이의 집 호수였다. 105동 로비 앞에 서서 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로비 앞에 있는데, 문 좀 열어줘.”

“알았어.”

하고 통화가 끊어졌다. 즉시 로비의 유리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집 앞에 도착했고,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철컹.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애는 없었다. 원격 조종인 듯했다.

“어, 왔어?”

그 애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서며 나왔다. 회색 후드티에 하늘색 수면 바지 차림. 편한 옷차림이었다.

중문을 열고 거실로 갔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참고로 우리밖에 없어.” 안심하라는 듯이 그 애는 말했다.

“다른 가족들은? 여행?”

“오빠는 직업 군인이라 집에 잘 안 오고, 부모님 두 분은 모두 타지 출장. 그래서 부른 거야. 생전 처음 보는 남자애랑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집안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해서.”

“확실히 그렇긴 하겠네.”

“하지만 버킷리스트에는 ‘파자마 파티하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를 만한 사람도 너밖에 없고.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출장을 가셨다? 이건 완전 널 집에 초대해서 파자마 파티를 하라는 신의 계시 같은 게 아닐까? 물론 신은 없겠지만.”

그런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듯한 말을 술술 내뱉은 뒤, 그 애는 하이파이브를 권했다. 그에 응해 손바닥을 세게 쳤다. 아차, 힘 조절에 실패했다. 짹,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야야……. 아프잖아!”

손바닥을 부여잡으며 그 애는 화를 냈다. 좀 심했나, 하는 생각에 미안해졌다.

“미안. 좀 심하게 때렸나?”

“아냐,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단단히 빠진 모양이었다. 일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애를 보니 소리의 출처는 그 애의 뱃속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밥, 안 먹었어?”

“응, 아직. 귀찮아서.”

창피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마침 나도 먹은 것은 없어서 허기가 밀려오던 참이었다.

그때 냉장고 위에 있던 컵라면이 그 애의 눈에 띄었다.

“이거, 먹을래?”

컵라면을 꺼내 나에게 보이며 권했다. 나는 조용히 끄덕였다.

뜨거운 물을 붓고 4분간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그 애한테 한 번 더 사과했다.

“미안해.”

“괜찮아. 잠깐 놀랐던 것뿐이야. 너도 당황한 것 같던데.”

“고마워.”

감사 인사에 그 애가 히~ 하고 웃었다.

컵라면으로 대충 배를 채우고 나서 이제부터 할 것을 의논했다. 하지만 파자마 파티는 둘

다 생애 처음이었기에 적절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우선, 씻자. 뜨끈한 물로 샤워하고 나오면 뭐라도 생각날지도 몰라.”

골똘히 생각해 내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런 의견을 냈다.

“네가 먼저 씻으려고?”

“원한다면. 할 것도 딱히 없잖아?”

“알았어.”

그녀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보고 있었다.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서 느낌은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리라.

샤워기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샤워하면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와중에, 그 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유성, 샴푸가 떨어졌어. 미안한데 좀 가져다줄래?”

스마트폰을 끄고 그 애의 부름에 대답했다.

“어디 있는데?”

“중문에서 가까운 신발장에.”

그 애의 요청에 응수해 중문을 여니 밖에 머물고 있던 한기가 몸을 엄습해 왔다. 추위에 무방비 상태였던지라 잠깐 부르르 떨고서는, 신발장을 열고 샴푸를 그녀에게 가져다주었다.

아무런 생각도 없었기에, 노크를 두 번 하고 바로 화장실 문을 열었다. 아차, 이 안에는 지금 전라 상태인 동갑내기 여자애가 샤워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이미 문을 연 뒤였다. 하지만 다행히 샤워 커튼이 쳐져 있어 “이 변태 자식아, 뭐 하는 짓이야!”와 같은 말이 들려올 일은 없었다.

조용히 샴푸를 샤워 커튼 앞에 놓고 문을 닫았다. 그러자 문 뒤에서 “고마워!”라고 하는 그녀의 감사 인사가 들렸다. 거기까지만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 참고로 나 다 벗고 있다!”

라며, 놀리는 것이 아닌가.

“어쩌라고!”

그렇게 응수해 주니 뭐가 그리 재밌는지 안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 그녀가 옷을 전부 입고 밖으로 나왔다. 젖은 머리를 털며 “후우, 개운하다.”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하얀 반팔 티셔츠에 하늘색 계열의 수면 바지. 반절은 파자마라고 부를 수 있겠다. 생각해 보니 내 옷차림은 파자마라고 부르기 좀 애매했다. 하얀 반팔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바지. 집에서 흔히 입는 옷이지만 ‘파자마’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았다. 뭐, 그 애는 옷차림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다음에 내가 씻고 나왔다. 역시 옷가지를 모두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서 다 입고 나왔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는데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그녀가 시간을 보낼 방법을 하나 제안했다.

“너 씻을 동안 생각해 놓은 건데, 진실게임 해볼래?”

“진실게임?”

“뭔가 승부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질문에 진실로 대답하는 거야.”

“재미, 있으려나?”

“해보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알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하곤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둑판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게임은 오목, 어때?”

“나쁘지 않지.”

세연이의 선공으로 게임이 시작되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게임은 점점 시간을 끌어갔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바둑돌을 놓아봤자 5칸을 일렬로 놓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무승부였다.

“진짜 오래 했네.” 세연이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한 판 더 하다가 내일까지 하는 거 아냐?”

“그러게. 아, 우리 원래 진실게임 하려고 오목한 거였잖아.”

“맞네. 그럼 승부는 어떻게 하지?”

내 질문에 잠시 고민을 하더니, 방에 들어가서 빗을 하나 가지고 왔다.

“이걸 돌려서 손잡이 부분이 향한 사람이 패배, 아니면 승리인 거야.”

그렇게 말하곤 바둑돌이 정리된 바둑판에 빗을 놓고, 한 바퀴 돌렸다.

빙글빙글.

손잡이 부분이 향한 곳은 나였다.

“아싸!”

“이상한 질문만 하지 마.”

질문을 할 처지가 된 그녀는 음흉한 미소를 짓고선 이렇게 말했다.

“첫 연애 썰 풀어줘!”

연애라고 할 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은 허상이었다. 그렇기에 무미건조하게, “없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자 그 애는,

“시시해!”라며 투덜댔다.

“연애해 본 적이 전혀 없는데, 연애 썰을 어떻게 풀라고.”

“그럼 짝사랑은?”

“짝사랑?”하고 되물으며, 옛 기억을 되살려 봤다. 딱히 연애 감정을 느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주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연애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람들—예를 들면 지금은 세상에서 사라진 밴드부 여자애라든지, 지금 내 앞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서 곧 없어질 여자애라든지—가 기억났다. 그랬기에 그 질문에 다시 한번 “없어.”라고 대답했다.

“진짜로 없어? 이성이라 사적으로 접촉한 것도 나밖에 없고?”

그 사안이라면 해당되는 건 역시 있었다. 하지만 현재 고인인 상태였기에, 해줄지 말지 고민되었다. 그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그 애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었다.

“중학교 때, 밴드부 리더였던 애랑 자주 만나긴 했는데—”

“그랬는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어질 내 이야기를 한껏 기대하고 있었다.

“—죽었어.”

“에?” 완전히 기대가 가라앉은 표정으로, 아주 실망했다는 듯이 그 애는 탄식했다. 아무리

실화라도, 기승전결에서 승과 전을 빼고, 결을 사망 엔딩으로 했으니 실망한 건 당연할 거라 본다. 굳이 그 애에 관한 이야기를, 더는 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이야?”

“응.”

“뭐야, 이 근본도 없는 기-승-전-사(死)는.”

“‘승’도 ‘전’도 없는 이야기야. 그냥 그런 애랑 자주 접촉했었는데, 나보다 먼저 죽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야.”

“진짜로 죽은 거야?”

“장난인 줄 알았어?”

“놀리려는 줄 알았지. 그나저나 어찌다가 죽었는데? 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실례려나?”

“됐어. 사인은 단순하니까.”

기억을 되살려 본다. 그 애가 죽은 것은, 정말 단순하게 심장 발작이었다. 평소에 별 이상도 없었고, 건강하게 내일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탓에 주변 사람들은 그 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친구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세연이에게 전달했다.

“미안. 괜한 이야기를 꺼냈네.” 세연이는 뭔가 죄라도 지은 양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 나에게 사죄했다.

“굳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아무 감정 없으니까.”

“그래도 아픈 기억을 되살린 거잖아.”

“그냥 그저 그래. 그 애가 언젠가 그런 적이 있거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고.”

“오, 심오하다. 우리 이야기에 딱 맞는데?”

“확실히.” 현실이 그렇기에 왠지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별로 슬프지는 않더라. 어차피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언젠가는 치러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살아 있는 우리는 계속 살아가다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거고.”

“웬지, 심오한 이야기네.” 조금 씩씩한 표정을 짓다가, 금방 평소의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돌아와서는 밝게 말했다.

“그럼 언제까지고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로 있을 순 없으니까, 2회차 질문에 들어가자!”

빙글빙글, 빗이 돌아간다. 이번엔 내 쪽이 질문할 차례였다.

“네가 질문해야 하네. 야한 질문도 좋아.”

뭐라는 거야, 대체.

“그런 질문 안 해.”

그렇게 반박하고 나서 적당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그럼 너는 연애해 본 적 있어?”

“따라 하는 거야?”

“딱히 할 애기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뭐 난 썰을 풀어드려야지.”

살짝 기대감이 생겼다. 하지만 살짝 금은 갔다.

“사실 남자친구가 없어서 연애 썰은 못 풀니다. 미안!”

‘어이가 없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왔을 때, 그 애가 “하지만 풀 이야기는 있지.”라며, 대

답을 해줬다.

“근데 짝사랑은 있었어.”

짝사랑이라, 이거 꽤 귀한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같은 반 남자애였어. 역시 잘생기고 키도 큰 애였거든. 뭐,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지.”

“오, 그래?” 흥미롭다는 듯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하지만 개는 따로 좋아하는 애가 있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아쉽게 됐네. 결국 고백도 못 해본 거야?”

“뭐 그렇게 됐지. 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보통 여자애들 좋아할 만한 고백 방식이 뭐냐고. 그래서 멋대로 나한테 할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고백 방식을 말해줬지. 근데 그 고백은 아쉽게도 내가 받은 고백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야.”

“안타까운 얘기네.”

“뭐, 지금은 다른 세계 이야기지만.”

“잘 극복한 것 같아서 다행이네.” 잘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시 할까.”

이번엔 내가 빗을 돌렸다. 손잡이 부분은 나한테 향해 있었다.

“이번엔 무슨 질문을 해볼까나?”

라며, 의기양양하게 그 애는 질문을 생각해 내기 시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련한 표정으로 첫사랑을 도전도 못 해보고 깨진 이야기를 풀던 애가 맞는지 의심이 되었다.

“아, 이거 재밌겠는데?”

그 애는 음흉하게 흐흐, 하고 웃으며 질문했다. 그런 행동에 조금 소름이 끼쳤다.

“구글, 크롬 앱, 인터넷 앱의 검색 기록에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걸끄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다. 오히려 난 당당했다.

“그럼 보여줘 봐.”

“싫은데.”

“아하, 너무 민망할 정도로 하드한 걸 보는구나?”

보여주지 않으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걸끄러운 게 있다는 게 되는 건가.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놀림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좋진 않을 것 같아 당당하게 스마트폰을 켜서 잠금을 해제하고 인터넷 앱을 켰다. 그러자 그 애는 쩍싸게 스마트폰을 낚아채더니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음…… 왜 이리 깨끗하지?”

연속해서 크롬 앱도 들어갔다. 역시 깨끗했다. 재미없다는 듯 스마트폰을 나에게 돌려줬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아, 하드 디스크에 있나??”

“없어.”

“이거 참 아쉽네. 뭔가 재미있는 거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하고는, 자기가 한 말이 뭐가 그리도 웃겼는지 깔깔댔다.

“자, 이제 다음 승부를 하자.”

그렇게 말하고 나는 빗을 돌렸다. 그 애 쪽으로 손잡이가 향했다. 그 애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개의치 않고 질문을 던졌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질문 참 심오하네.”

내 질문에 그녀는 턱을 괴고 그렇게 말했다.

“1인칭 시점으로 본다면, 인간의 정신 활동은 뇌에서 이루어지잖아. 근데 죽으면 뇌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게 되거든. 그렇다면 죽은 뒤의 정신은 평생 꿈을 꾸지 않고 자는 거랑 똑같이 되지 않을까?”

“사후세계는 없다는 거네?”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된다면 좀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해.”

확실히, 사후세계가 없다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니 재미없게 된다.

“제로로 돌아간다. 이런 거잖아.”

쓸쓸한 표정을 하고서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렇지. 우리 미래기도 하고.”

“살짝 우울한 이야기네.”

“그럼 이제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볼까?”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가 빗을 돌렸다.

왠지 그 후로 분위기 뜨는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죽은 뒤에 있을 장례식 방법이나, 시신 처리 방법 같은 죽음과 관련한 심오한 질문들이었다. 시한부 소년과 시한부 소녀가 둘이서 진실게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다.

진실게임을 20판 넘게 하자, 할 질문도 떨어졌다. 소파에 누워 있는 그녀를 배려해 내가 대신 빗을 돌리니, 손잡이가 내 쪽으로 향했다.

“어느 쪽이야?”

“내 쪽.”

더는 질문할 게 남아 있지 않은 듯했지만, 그 애는 아직 궁금한 게 남은 모양이다. 소파 위에 누워서, 식탁 의자 위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던 나에게 물었다.

“곧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 들어?”

질문하는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죽음에 관한 질문이라도 이질적으로 명랑하게 묻던 그 애가, 이 질문만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니 더욱 이질감이 들었다.

역시, 죽음에 관해 딱딱 떨어지는 대답이나 질문을 내려왔던 나도, 이 질문만은 말문이 막혔다. 할 말이 없었다기보다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다.

체감상 오랜 고민 끝에, 딱 세 음절로 정리할 수 있었다.

“무섭지.”

“너라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애는 씩씩하게 웃었다.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니 행동거지나 말투를 봐선, 오히려 죽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사람 같긴 하다. 그런 점에서, 나도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죽고 싶지 않아.”

“.....”

말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소파로 향했다.

그 뒤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멍하니 꺼진 텔레비전에 비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옆에서 나도, 텔레비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죽음이라는 괴물이 나를 삼키는 걸 느끼면서도 눈으로 보지 못하다가, 인제야 보게 된 느낌. 이제 난 죽는다. 이걸 확실히 자각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제 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시계를 보니 거의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옆에 있던 그 애의 숨소리가 바뀌었다. 눈을 감고 있는 걸 보니 잠든 모양이다. 소파 옆에 있던 담요를 그녀의 몸에 덮어주었다. 나는 생바닥에 누워 다른 담요를 덮고, 쿠션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바닥에서 자서 그런지 허리가 쭈셨다. 고통 때문에 일어나니 소파 위에서 세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면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어제 다 못 본 소설을 마저 읽었다. 세연이가 일어난 것은 30페이지 정도를 읽은 뒤였다.

“먼저 일어나 있었네.” 하품을 하며 세연이가 말했다.

“잘 잤어?”

“응. 그나저나 넌 어디서 잤어?”

“바닥에서.”

“설마, 요도 안 깔고?”

“응.”

일순 표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 침대에서 잘 걸 그랬나? 미안. 허리 아프지?”

“좀 쭈시긴 한데, 금방 낫겠지.”

“미안해서 어찌지?”

“괜찮다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옆으로 자연스럽게 쓰러졌다. 팔걸이 부분도 소파 재질과 같아서, 그 위에 머리를 대고 있기에 안정맞춤이었다. 그러고 있었다.

“오늘 점심 지나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거야. 그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고.”

잠시 잠들 뻔했는데 옆에서 세연이가 그렇게 말했다.

“알았어.” 몸을 일으키고, 소파에서 일어나 짐을 짰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옷차림을 하고서 중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잊었던 말을 하듯 나는 전했다.

“아, 오늘 즐거웠어.”

중문 앞에서 마중을 나오던 그녀가 그 말을 듣더니 후훗, 하고 웃고는 팔을 흔들었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현관을 나왔다.

“나, 카페 알바 해보고 싶어.”

세연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마침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무슨 아르바이트가 좋을지 고민도 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하지만 같이 일할 수는 없었던 것이, 시간대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났다. 나는 10시부터 16시까지, 세연이는 16시부터 22시까지였다.

12월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그런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비를 해 놓지 않았던 터라 나는 덜덜 떨면서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자, 띠링 하고 문에 달린 풍경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하얀 와이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모자를 쓴 남직원이 포스기를 만지며 주문을 받았지만, 난 여기에 고객으로 찾아온 게 아니다.

“저기,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유성이라 합니다.”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안으로 모실게요.”

남자는 ‘STAFF ONLY’라고 적힌 문으로 나를 들였다.

“카페 알바 경력 있으세요?” 남자가 앞치마와 모자를 건네며 말했다.

“아뇨, 없어요.”

“처음에는 쉬운 일만 하니까, 긴장하지 말아요.”

“아, 네.”

“저는 안기현이라고 해요. 이력서 봤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신 거 같은데, 뭐 호칭 같은 건 형이라 하든 선배라 하든 신경 안 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아, 그럼 기현 선배라고 할게요.”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하고 밖으로 나왔다. 카페에 와서 처음 맡은 업무는 설거지였다.

“선배, 설거지 다 했어요.” 고무장갑을 벗고 말했다.

“그럼 바닥 좀 쓸어줘요.”

설거지, 청소, 설거지, 청소. 아마 이게 반복됐으리라. 음료를 만드는 법은 아직 가르쳐 주지 않았기에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세연이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이 녀석, 첫날부터 지각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기현 선배였다.

“수고했어요. 첫 알바 소감은 어때요?”

“좀 힘드네요.”

선배는 그 대답에 하하, 하고 웃었다.

“계속 청소랑 설거지만 해서 좀 지루했지요?”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보람은 있었네요.”

“의원데요? 아무튼, 좀 지나면 음료 만드는 법도 좀 알려주고 그럴 겁니다.”

듣던 중 다행인 소식이다. 계속 그 일만 반복하다간 사람 미친다고.

“재밌겠네요.”

“유성 씨는 왜 카페 알바를 선택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친구가 하자고 해서 한 거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도 있기

도 하고.”

“낭만 때문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 애가 말한 게 생각났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음료 만드는 게 내 낭만이야!”라며,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한 그 애의 낭만이 무너져내리는 순간이었다. 이게 곧 내 낭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반쯤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뭐, 낭만도 어느 정도 있어요.”

“낭만 때문이라면 좀 실망할 텐데.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해요.”

선배는 웃으면서 악수를 청해, 약간 어색해하면서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다.

“안 어색해해도 돼요.”라며, 선배가 깔깔 웃었다. 하지만 어색한 웃음은 지울 수 없었다.

“유성 씨는 진로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보니 학교 다닐 시간에 일하는 건데.”

진로라, 딱히 생각해 놓지도 않았다. 병이 밝혀지기 전에도 마찬가지라서, 마땅히 대답할 말을 잃고 말았다.

“저, 진로는 딱히 없어요.”

“알바 인생?”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남은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니 사실이었다. 확실한 건, 금방 죽을 운명이라는 것뿐.

“화이팅해요. 언젠가 자기 적성 찾아서 살 수 있겠지.”

“그나저나 선배는요?”

“난 바리스타. 카페에서 알바하는 것도 경험을 쌓는 거죠. 학교는 진작 때려치웠고요. 나, 수능도 안 봤어요.”

“진로가 있어서 좋겠네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니까.”

“뭐,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인생사 새옹지마니까 못 이루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해보는 거지. 아무튼, 열심히 사세요.”

그 말에서, ‘아무튼’과 ‘열심히 사세요’라는 말에 왠지 ‘남은 인생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그러는 것처럼 들렸다. 내가 곧 죽으리라는 걸 모르니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나한테는 그렇게 들렸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끝날 때는 분명 4시였는데 집에 오니 5시 가까이 되어 있었다. 그랬던 지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불이 다 꺼진 집안, 그 가운데에 엄마의 서재만 불이 켜져 있었다. 서재에서 엄마는 소설을 쓰고 계셨다.

“다녀왔습니다.”

열려 있는 서재 문에 얼굴만 내놓고 그렇게 말했다.

“어, 아들 왔어?”

엄마는 소설을 쓰는 데에 열중해 계셨다.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시선을 집중하고 키보드에서 현란한 손놀림을 펼치며 엄마는 그렇게 대답하실 뿐이었다.

방에 들어가 책상 앞 의자에 털썩 앉았다. 책상 위에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밴드부 부원 사진이었다. 사진 안에는 나와 하민이, 그리고 베이스리스트와 드러머가 사이가 좋다는 듯이 웃고 있다. 특히, 하민이와 나는 붙어 있었다.

하아,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하민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애에게 질문을 던졌다.

죽기 직전에 넌 무슨 생각을 했니?

당연히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것이, 이럴 때 쓰이는 걸까.

새삼 생각해보니 오늘이 12월 첫날이다. 병에 걸린 지 1년째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다. 곧잘 버텨왔구나, 나. 이제 남은 날이 제로로 다가오고 있다.

번뇌를 떨치고자 소설책을 집어 들었다. 불현듯 집어 든 책은 《내일의 유서》라는 단편소설 집이었다. 그렇다, 하민이가 죽기 직전에 언급했던 그 소설이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당장 내일 사고로 죽어버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난 매일을 시한부 인생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래.”

그런 대사가 눈에 띄었다. 하민이가 죽기 전에 이 대사와 똑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난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 당장 A4 용지 한 장을 던져 주고 하고 싶은 일을 적으라고 한다면, 그 종이는 여전히 백지인 상태리라. 아니, 애초에 ‘아직’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시한부 환자에게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묻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의미 있는 답을 하랴.

사진에다가 대고 다시 물었다. 하민아,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은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6

아르바이트에 다녀왔더니 서재마저 불이 꺼져 있었다. 이 시간이라면 엄마가 계셔야 할 때인데, 계시지 않아서 살짝 의아했다.

소파에 털썩 드러눕고 TV를 켰다. 뉴스 전문 채널에서 흘러나온 소식은 같은 시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직원 두 명이 숨졌다는 소식이었다.

“세상 참 흥흥하네.”

그런 혼잣말을 허공에 던졌다.

저들은 분명, 그날 본인이 죽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으리라. 그리고 보면 사람 죽는 거, 한순간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그때 스마트폰이 부웅 하고 울렸다. 카톡이었다.

[엄마: 엄마 장례식장 가야 해서 내일이나 집에 갈 것 같아. 밥은 아빠랑 알아서 해결해. - 18:44]

엄마의 카톡 다음으로 또 카톡이 왔다.

[아빠: 아빠 오늘 회식 있어서 밤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밥은 엄마랑 알아서 해결해. - 18:44]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는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카톡으로 현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할 때, 엄마에게서 다른 카톡이 왔다.

[엄마: 아빠 오늘 회식 있으시다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겠네. 미안 아들. - 18:45]

서로 대화가 이뤄진 모양이네.

[알았어. 근데 누구 장례식이야? - 18:45]

궁금해져서 엄마께 그렇게 물었다. 가까운 분 장례식이라면 분명 나를 데리고 가셨을 테고, 먼 친척이라고 해 봐야 왕래가 거의 없어 굳이 갈 필요는 없었으리라.

[엄마: 엄마 친구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대. - 18:45]

방금 뉴스에서 들었던 그 사고였다. 일순 소름이 끼쳤다.

[그래? 알았어. 명복 잘 빌어드리고 오세요. - 18:46]

그 답장 바로 다음으로 카카오톡 오리지널 캐릭터가 엄지를 내미는 이모티콘이 보내져 왔다.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소파 아래로 내려놓고서, 눈을 감고 뉴스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아니, 흘러들었다는 게 정확할 거다. ‘기소병이 날 잡아먹기 전에, 다른 사인으로 먼저 죽어버리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뇌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대충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고 소파 위에서 잠들었던 모양이다. 스마트폰의 진동이 오른손에서 느껴져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잠들었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니까.

스마트폰을 들어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연주할 줄 아는 악기 있어?” 전화를 건 것은 세연이었다.

“피아노 있는데, 왜?” 밴드부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으니까. 공연도 여러 번 한 적 있다.

“피아노? 음, 편찮으려나? 다름이 아니라, 버킷리스트에 ‘변화가에서 버스킹하기’가 있거든. 함께 해볼 수는 있을까 해서. 해볼래?”

버스킹이라. 밴드부 시절에 잠깐 일정이 잡힌 적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취소된 경험은 있었다.

“해보자.”

“고마워. 덕분에 혼자 하게 되지는 않겠네.” 수화기 너머로 기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지?”

“아, 그러네. 개인 연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합주는 꼭 해봐야 하니까. 참, 요즘 우리 집 자주 빈다. 내일 우리 집에 와서 할래? 피아노도 있으니까 와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내일 보는 걸로 하자.”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가 끊어졌다. 어차피 내일은 주말이기도 하니까, 카페 알바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세연이의 집에 찾아갔다. 집 주소는 저번에 간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서 세연이의 안내를 받아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언뜻 보니 생활감은 그리 느껴지지 않았다. 몇 개월 정도 비어 있었던 것 같았다.

“우리 오빠 방이야. 휴가 때만 집에 있으니까 거의 누가 있을 일도 없거든.”

그 설명을 듣고 저번에 가족의 행방에 대해 물었을 때, 오빠가 직업 군인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그럼 실례할게.” 양해를 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우연의 일치인지, 피아노가 내가 치던 피아노랑 완전히 같은 제품이었다.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C4 건반을 눌러봤다. 오랜만에 타건감을 느껴보는구나. 그 자리

에 앉아서 곡 하나를 연주했다. 쇼팽의 〈흑건〉. 학교 음악실에서 ‘나 피아노 좀 친다’ 하는 애들이 흔히 치는 곡이다. 물론 소리는 나지 않았다.

“웬지 엄청난 기교 같은데?”

다른 방에서 기타 케이스를 들고 온 세연이가 무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던 내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말했다. 웬지 창피한 기분이 들어서 바로 그만뒀다.

내가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세연이는 케이스에서 기타를 꺼냈다. 저번에 보았던 어쿠스틱 기타였다.

“이거, 어쿠스틱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 여기다 앰프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

처음 보는 물건에 신기했다. 그 와중에 세연이는 기타 현을 아래로 끌어내렸다. Em11. 아무 프렛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였다.

이번에는 C코드를 잡고 위의 현에서 아래 현으로 천천히 튕겼다. 청명한 기타 소리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 뒤로 Am, F, C, G. 간단한 코드였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은 대부분 이 코드를 반주로 삼으니까 말이다.

“오오~” 대단한 기교를 봤다는 듯이 감탄사를 내뱉어 줬다.

“별거 아님네.” 어색한 웃음을 짓고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듯이 핑거스타일로 어떤 곡을 연주했다.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곡이다. 오시오 코타로의 〈황혼〉. 역시 ‘나 기타 좀 친다’ 하는 애들이 친구들 앞에서 치는 곡이다.

“나도 했으니까, 아무 곡이나 연주해줘.”

“네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피아노 의자에 앉아 전원을 켜고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누구나 알 수 있을 법한 클래식이었다.

“어, 이거.”

연주하고 있는 곡이 무엇인지 그녀도 눈치챈 모양이다.

“개논 변주곡이네.”

“맞아.” 연주를 지속해 나가며 대답해 줬다.

연주가 다 끝나니 한 명뿐인 관중의 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대단한 공연에서, 대단한 연주를 마친 피아니스트한테 빙의해 인사 제스처를 취했다.

“어디서 배운 거야?” 세연이가 대단하다는 듯이 감탄했다.

“중학교 때 밴드부에서 활동한 적 있거든.”

“오, 딱 좋다! 합주 경험도 그럼 많겠네?”

“뭘, 많긴 하지?”

“넌 만나서 다행이네.”

웬지 마음속 어딘가가 간질간질한 말이었다.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니까.”

그리하여 버스킹의 준비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포지션은 이랬다. 세연이가 기타 겸 보컬이었고, 나는 피아노 겸 편곡. 밴드부 시절에 편곡을 자주 해본 적이 있었기에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그런데 기타를 치는 세연이의 모습에서 하민이가 보이는 것은 왜일까.

오후 2시쯤에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엄마께 잠시 신세를 져서 자가용에 피아노와 스피커를 싣고 이곳까지 온 것이다.

“아들, 화이팅!”

엄마는 그렇게 응원하시고는, 액셀을 밟고 떠나셨다. 멀어져가는 차에 손을 흔들고는, 악기를 설치했다.

잠시 후 세연이가 코트와 머플러 차림에 기타를 메고 도착했다.

“미안, 버스 시간을 잘못 봐서.”

“괜찮아. 5분밖에 안 늦었는데.”

기타에 각각 앰프를 연결한 뒤, 마이크와 스피커를 테스트한다. 옆에 있는 그녀의 카운터다운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고, 곧바로 연주가 시작된다.

우선 가벼운 오프닝부터 시작해, 곡이 바로 이어졌다. 첫 곡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사뭇 어울리는 곡이다.

피아노의 멜로디로 시작해, 기타가 여기에 개입한다. 전주가 끝나고 반주로 들어갈 무렵, 그녀가 못갖춘마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랫소리는 상상을 뛰어넘었다.

“와, 진짜 가수가?”

“저 여자에 노래 되게 잘 부른다.”

팔짱을 꼭 끼고 있는 커플, 깔깔거리며 대화하던 여고생들, 잠시 커피를 사기 위해 온 걸로 보이는 과잠 입은 대학생들. 모두 우리 공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었다.

좋아, 웬지 느낌이 좋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아노 반주로 그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첫 번째 곡의 연주가 끝났다.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왔다. 등 뒤에서 무언가 찌릿한 느낌이 있었다. 전율. 중학교 때 밴드 활동 때도 느끼지 못했던 이 느낌을, 이 순간, 이 거리에서, 드디어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다음 곡도 잘 들어주세요!”

그녀가 공연을 주도해 나가며, 다음 곡을 이끌었다. 다음 곡은 3인조 남성 밴드의 곡이다. 원, 투, 쓰리, 포.

선율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원키는 남자 키지만 변환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지라 안 어울리지는 않을지 걱정했지만, 의외로 잘 어울렸다. 애초에 원키도 높았던 탓인지, 아니면 그녀가 잘 소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잘 어울렸다.

광장을 찢었다, 이런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이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박수와 환호성이 가득했다.

“대박인데, 우리.”

마이크를 잠시 끄고, 그 애는 나에게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이 기세로 가자. 화이팅.”

준비해 놓은 곡이 모두 끝나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열광해 있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막을 내렸다. 악기를 정리하고 엄마께 전화를 드렸다.

“엄마, 공연 끝났어.”

“알아. 사실, 엄마 여기서 다 보고 있었으니까.”

놀랐다. 어디서 보고 계신 거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엄마가 계신 위치를 찾아냈다.

“엄마!”

“헉, 너희 어머니 오신 거야?” 옆에서 세연이가 긴장한 듯 물었다.

“응. 피아노랑 앰프, 엄마께 부탁드린 거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 엄마가 오셨다.

“공연 잘 끝냈어?”

“응. 진짜 이 친구가 끝내주게 잘했어.”

세연이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다.

“이 친구는 누구?”

“이세연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꾸벅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유성이 엄마야. 유성이랑 친하게 지내렴.”

그리고 나서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엄마 잠깐 차 좀 가지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봐.”

“알았어.”

그리고 엄마는 캠퍼스 주차장 방향으로 가셨다.

“공연, 진짜로 멋있었어.”

엄마가 가시자마자 그녀에게 칭찬해 주자, 씨익 하고 웃었다.

“고마워. 네 덕이지,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일 하나 더 이뤘네.”

“아, 참. 그러네.”

그녀는 기타 케이스에 있던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는 해당 항목에 빨간 플러스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라며, 희비의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로 그 애가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 애의 눈가가, 왠지 축축해져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그랬기에 걱정되어서 물었다.

“왜.”

“아냐, 아무것도.”

그렇게 말하고서는, 다시 얼굴이 화색이 되어 말했다.

“혹시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간 혹시 돼?”

“아르바이트 있잖아.”

그렇게 말하자 그 애는 폭소를 터뜨렸다.

“바보, 크리스마스에 무슨 아르바이트야.”

“아, 맞다.”

생각해 보니, 크리스마스 때 사장님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게 기억났다.

그나저나 지금 애가 왜 나보고 크리스마스 때 시간이 있냐고 물은 걸까. 그야 뭐, 뻔한 대답이지 않을까.

“버킷리스트 때문이야?” 항상 그랬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확인차 물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원래는 혼자 하는 거였는데, 너랑 같이하게 됐으니까. 너랑 같이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

“응.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공원에서 보자.”

“뭐 할 건데?”

“비밀. 히히.” 그러고서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였다.

7

전날까지 눈이 내려 쌓여 마치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칼바람이 불고 있어 약간 춥기도 했다. 이런 날씨에 그 애는 뭘 하려고 날 부른 걸까. 그때 비밀이라고 했던 바람에 조금, 아니 많이 궁금했다.

“왔어?”

코트에 베레모, 그리고 하의에는 치마 차림의 그 애가 먼저 와 있었다.

“안녕.”

“갈까?”

“어디 가는 건데?” 계속 물어보고 싶었던 걸 드디어 물어봤다.

“짤.”

그 애가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받아서 확인해 보니 시 외곽 쪽에 있는 놀이공원 티켓이었다.

“여기 한 번 가보자.”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그 애는 내 손목을 잡고 근처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앉았다.

“갑자기 놀이공원?”

“응.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확실히 혼자 놀이공원에 가는 건, 놀이동산이라는 시설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미쳐 있거나 둘 중 하나리라.

“그런데 너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 원래 계획과는 틀어졌지만.”

그런 사정을 듣다 보니 시 외곽 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도착했다. 하지만 자리가 없었기에 서서 가야 했다.

중간 정도 갔을까, 자리가 두 군데 남았다. 커플이 일어선 것이다. 둘은 내릴 때까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알바는 아니지만.

타는 사람마다 커플이었다. 확실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놀이공원에 데이트하는 커플이 많은 건 이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리라.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걸어서 놀이공원 앞에 도착했다. 인터넷 예매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예매를 지나쳐 인터넷 예매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다.

게이트에는 산타복이나 루돌프 분장을 한 직원들은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상과 신비의 나라 아도페르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우리, 뭐부터 탈까?”

그 애가 잔뜩 기대한 얼굴로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했다. 주는 척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탔으니 말이다.

“아, 그래. 우리 이거 타러 가자. 여기까지 와서 이걸 안 탈 수는 없잖아?”

그 애가 놀이공원의 지도에 대고 가리킨 것은, TV에서 광고로 몇 번 나온 적 있는 롤러코스터였다. 대한민국 최초로 수직 낙하하는 놀이기구라나, 뭐라나.

아무튼 딱히 내키지는 않았다. 애초에 무서운 놀이기구를 좋아하지도 않는 편이라 놀이공원에 와도 그리 재밌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애의 기대에는 질 수밖에 없었다.

역시 유명한 롤러코스터다 보니 줄은 꽤 길었다. 대기 시간이 1시간이나 된다고 줄 입구에 그렇게 쓰여 있었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제대로 말하자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리라. 우리가 탑승하기 직전에 시간을 봤는데, 서기 전보다 1시간이 지나 있었으니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안전바를 몸에 고정했다. 1칸당 8명씩 3칸으로 탑승하는 기구였는데, 둘다 그렇게 강심장은 아닌지라 맨 가운데 칸에 탑승했다. 근데 의미가 있나? 확실히 내 쪽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맨 끝자리라 오른쪽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구할 ‘절대 반지’를 찾아라! 트라이켄, 출발!”

그런 유치한 구호가 스피커로 크게 나오며, 열차는 출발했다.

천천히 열차가 상승한다. 덜컹덜컹, 체인이 맞물리는 소리가 들린다.

“무서워?”

살짝 긴장해서 경직된 얼굴로 안전바를 꼭 잡고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 애가 옆에서 장난치듯 물었다. 그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

“전혀.”

“근데 왜 안전바에서 손을 놓지를 못해.”

안전이냐, 아니면 자존심이냐. 그걸 두고 뇌 내에서는 양쪽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 결국 어차피 안전바가 몸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기도 하고, 설령 극악의 확률을 뚫고 안전바가 풀린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잡아봤자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결론을 내려 안전바에서 손을 뗐다.

덜컹, 열차가 맨 위쪽까지 올라왔다. 천천히, 레일을 따라 돌았다. 각도가 조금 기울었는데도, 레일이 보이지 않았다. 아찔한 높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순, 열차는 떨어졌다.

“까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앗!!”

공기를 가르며 열차는 무서운 속도로 낙하했다. 열차는 레일을 따라 휘어지고, 360도로 돌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그 무서운 속도로 또 낙하했다.

정신없이 열차에서 내렸다. 다시는 타나 봐라, 저거. 속으로 약간의 욕설을 내뱉고서, 그 애

의 반응을 살폈다.

“미친…….”

황홀한 표정으로 감탄사를 내뱉는 그 애가, 이걸 한 번 더 탈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런 불길한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다는 게 참 슬픈 일이었다.

“한 번 더 탈까?”

또 잔뜩 기대한 얼굴로 내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결국 같이 타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한 시간을 기다려 가며 그 롤러코스터에 탔다. 대체 왜 이런 걸 즐기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약을 먹어야 사람을 열차에 태우고 떨어뜨리는 행위가 재밌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걸까?

낙하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은 떨어지는 모양인지, 열차에서 내리니 배가 고파졌다. 시간을 보니 12시 정도가 되어 있었다. 점심 먹을 시간이구나.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에 갔다. 놀이공원의 부지 자체가 크다 보니 식당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른 식당은 이탈리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어느 피자집이었다. 음료와 피자를 선택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나, 잠깐만 뭐 좀 사 올게.”

라며, 그 애는 자리를 비웠다. 그러라고 하고 스마트폰을 켜 뒤, 놀이공원에서 무섭지 않게 노는 방법을 검색했다. 별 도움은 되진 않았지만 말이다.

피자가 나오기 전에 그 애가 자리로 돌아왔다. 손에는 고양이 귀 모양 머리띠를 들고 있었다.

“어울릴 것 같아서 사 왔어.”

아까 검색한 것에서 사람들이 머리에 머리띠를 쓰고 있었던 게 생각났다.

머리에 머리띠를 썼다. 그랬더니 그 애가 참을 수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하!”

“왜 그러는데?”

“아니, 갭이 너무 커서.”

꺼진 스마트폰을 들어 액정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과묵한 표정의 남자가, 머리띠를 쓰고 있어 웬지 웃겼다.

“웃을 만했네.”

그렇게 말했는데 세연이도 똑같이 머리띠를 쓰고 있었다. 강아지상인 얼굴에 고양이 귀 머리띠. 미묘한 조합임에도 세연이에게는 곧잘 어울렸다.

“어때?”

“잘 어울려.”

“그래?” 기분이 좋은 듯이 그 애는 후훗, 하고 웃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동벨이 부웅 하고 울려 음식을 가져왔다. 보이는 것은 맛있어 보였다. 피자를 한 입 베어 문다. 치즈가 쭉 늘어난다. 토마토소스와 야채들이 씹힌다.

“오, 맛있다!”

그 애가 놀란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확실히 놀이공원에서 먹는 피자라 그런지, 아니면 진

짜로 맛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있었다. 거기에 허기도 조금 있었기에 우리는 순식간에 피자를 비웠다.

“간만에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으니까 좋다.”

콜라를 마시면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어때, 오길 잘했지?”

“응.”

“너무 단답인데? 사실 오기 싫었던 거야?”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는데…….”

“오길 잘했지??”

그 애는 원하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물었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응.”

“역시.”

답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은 아니었다.

밥 먹고 바로 놀이기구를 탔다. 처음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금 걸다가, 바이킹이 보이자 바로 탔다. 역시 그 애가 끌고 와서 타자고 해서 탄 거였다. 진자운동으로 인해 점심에 먹은 피자가 조금 나올 뻔했다.

해가 저물 즈음에 우리는 관람차 앞에 서 있었다.

“관람차, 탈래?” 그 애가 관람차를 가리키며 제안했다.

“그래.”

관람차는 줄을 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산했다. 움직이는 관람차 안에 서로 마주 보고 앉았다. 천천히 관람차는 상승했다.

“관람차, 오랜만이네.”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듯, 그 애는 이야기를 꺼냈다.

“타 본 적 있어?”

“응, 아주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말고는 커플 아니면 사실 잘 안 타긴 해.”

“그렇지. 놀이공원에 갈 때 관람차가 항상 눈에 띄었는데, 항상 안 탄 게 아쉽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타 본 게 여섯 살 때였을 거야.”

“여섯 살 때?”

“응. 근데 별거는 없더라고. 그래서 약간 실망한 기억이 있어.”

“확실히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 재미는 없지.”

“넌 관람차 타 본 적 있어?”

“응. 나도, 여섯 살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가족이랑 아빠 친구의 가족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아빠 친구의 딸이 관람차를 타러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같이 탔던 기억이 있다. 그 애,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으려나.

그 후로 조금 정적이 흘렀다. 그녀도 나도 사색에 잠시 잠겼기 때문이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녀가 사색에서 빠져나와 문득 나지막이 말했다.

“파자마 파티 때 말했잖아. 영원히 잠든 상태가 된다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러게-” 자동으로 한숨이 폭 나왔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녀가 자문자답했다,

“다들 슬퍼하려나.”

“그러겠지.”

젊은 나이의 죽음. 문득 에리히 프롬의 말이 떠올랐다. 죽음은 쓰라린 고통이지만, 제대로 살아 보지도 못한 죽음만큼 힘든 건 없다던가. 아무튼 어린 나이에 죽는다는 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니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주변 사람도 쓰라리고 고통스럽다는 거겠지. 특히 부모라면 더욱.

“내가 먼저 죽으면 많이 슬퍼하진 말아줘.”

“네가 죽을 시점에는 아마 나도 곧 따라가게 될걸.”

“그런가.” 그 애가 웃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관람차는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래를 보니 사람들이 재미처럼 보였다.

평, 어딘가에서 터지는 소리가 났다. 홀린 듯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불꽃놀이였다.

“저기 불꽃놀이 한다.”

폭죽이 터지고 있는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불꽃은 관람차가 있는 높이보다 높이 올라갔다. 잠시 관람차가 멈추긴 했지만,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별 반응은 없었다.

“낭만 있네.” 그 애가 감탄하듯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낭만적인 대사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애가 그렇게 요구해 오자, 잠시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난 연애 소설의 제목을 말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¹⁾……?”

“그 소설, 봤구나.”

“중학교 때. 그때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소설은 실재를 반영한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현실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

“그나저나 그 대사, 손발이 오그라들었어.”

“미안.”

그 이후로 정적이 흘렀다. 폭죽이 터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몇 초 뒤 정적을 깨고 나는 다시 말했다.

“우리 사귄래?”

물론 진심은 아니었다. 그 애의 요청대로 로맨틱한 말을 생각해 내서 내뱉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웬지 진짜로 고백하는 것 같아서 긴장되었다.

세연이는 그 말을 진심으로 생각했는지, 생글생글 웃던 얼굴이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바뀌더니, 순간 정색하며 잘라 말했다.

1) 일본의 소설가 스미노 요루의 데뷔 소설. 외톨이 남주인공과 췌장암에 걸린 여주인공 야마우치 사쿠라가 만나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성장물이자 수명물이다. 작중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대사는 상대를 존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애는 안 해.”

차가움이 느껴졌다. 온몸이 경직되는 기분이었다.

“장난이야. 네가 로맨틱한 대사 해보라고 해서 한 건데, 왜 정색하고 그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나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뒤로 내릴 때까지 서로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꽃놀이를 관람할 뿐이었다.

이윽고 관람차가 움직였다. 관람차가 땅에 가까워져 문이 열렸을 무렵, 불꽃놀이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끝나버린 불꽃놀이에 나는 왠지 후련함을 느끼고 있었다.

천천히 움직이는 관람차에서 내려 출구를 향해 걸었다. 건다 보니 츠러스를 파는 가판대가 눈에 들어왔다. 배도 고프기도 하고, 내 실언 때문에 냉각되어 버린 분위기를 해소해 볼까, 하는 심정으로 가판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츠러스 먹을래?”

“……응.”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와 표정을 유지하며 간결하게 대답했다.

츠러스 두 개를 사서 근처 벤치에 앉았다. 츠러스를 한 입 베어 물고 씹으면서 세연이의 옆 모습을 보았다. 츠러스를 오물오물 씹으면서 그저 앞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에 걸린 지 딱 1년째야, 오늘이.”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하면서 세연이가 말했다.

“장치를 몸에 달면 수명이 1년 정도 늘어나게 되잖아. 근데 그 1년이 지나버렸어. 분명 한 달 전에 입원에 들어가고, 지금쯤이면 죽어 있어야 하는데.”

슬픈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었다. 하늘에서 차가운 것이 떨어졌다. 눈이 하늘하늘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있어도 되는 걸까.”

그 목소리에는 거대한 불안감을 억누르려는 그 애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제2장

1

[세연: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 05:19]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어떻게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갈게. 어디야.”

“병원.”

“한송대병원?” 기소병의 관리는 한송대병원에서밖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물었다.

“응. 604호.”

“알았어. 바로 갈게.”

하고 내 쪽에서 전화를 끊었다. 차림을 정돈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병원까지 걸어서 최소 1시간 반은 걸리는 거리를, 쉬지 않고 뛰어서 갔다. 그렇게 하니까 왠지 소년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같았다. 너를 구하기 위해, 바로 달려갈게. 이런 대사를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 애를 구할 일도, 구할 수도 없겠지만.

헉헉대며 병원의 자동문 앞에 섰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병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다. 데스크에서 면회 절차를 거치느라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그리 급한 일도 없었는데도 마음이 조급해져 사무원이 “네, 됐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감사 인사를 대충 던지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가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 층에 있어서 내려오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드르륵, 미달이문을 여니 3인실인 병실에 그 애 혼자 있었다. 침대에는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쓴 그 애가 있었다. 설마, 죽어버리기라도 한 걸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불을 꼭 쥐고 있는 손가락을 보고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왠지 안도했다.

조용히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정말로 죽어버린 걸까. 아닌 걸 알면서도 불안해졌다. 이름을 불러볼까, 생각하던 찰나, 미동이 생기더니 이불에서 얼굴만 쏙 내놓았다.

“뛰어난 거야?” 겨울임에도 땀을 뒀통 흘리고 아직 숨을 헐떡이고 있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응. 네가 조깅시킨 덕에 안 지치고 온 것 같아. 고마워.”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카톡에서 전해지는 말투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처럼 보였었는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모양인 듯 보였다.

“그나저나 너,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도 괜찮은 거야?”

“입원하기 전에 그 두통 오고 나서 별거 없던데.”

“놀랐잖아.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그러자 세연이가 킁킁 웃었다.

“왜, 내가 벌써 죽어버릴까봐?”

“응.”

세연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평소 같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서 안심하라는 듯 말했다.

“괜찮아, 아직 멀었어.”

다만, 그 말에는 약간 눈물기도 섞여 있었다.

세연이가 입원한 뒤에도 조강을 하러 공원에 나가고, 알바에도 나갔다.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예전과 같이 행동했을 뿐이었다. 변한 건 없어, 그러니 안심하고 계속해.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가끔 최면에서 풀려날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죽음에 관해 생각하느라 사색에 잠긴 시간도 많아졌다. 특히, 그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마다 더욱 그랬다.

“B타임에 누가 그만둔 모양이에요. 유성 씨랑 동갑인 여성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페에서 한가한 시간에 바닥을 쓸고 있던 도중,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문득 꺼냈다. 우리 카페에서는 A타임과 B타임으로 나누어서 일한다. 그중에 B타임에 일하던 동갑인 여성이라면 아마 세연이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짐작했다.

“아, 네. 아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이였는데?”

그러게, 무슨 사이더라. 그냥 친구라고 하면 되겠지?

“친구요.”

“학교 친구?”

“아뇨.”

학교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애와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냥 친구예요.”

애매한 대답에 선배는 다행히 웃어넘겼다.

“근데 진짜로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그분이랑 유성 씨랑 서로 알고 있었는지는.”

“면접 때는 같이 갔었는데, 사장님이랑만 하기도 했고, 한 번도 개에 관해서 말한 적도 없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 그만뒀는지 알아요?”

“좀 아파서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시한부라느니 어찌느니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았다.

“병약하신 분이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나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말이다. 그 병에 나도 걸렸다는 건 슬픈 소식이기도 하고.

“선배, 선배는 한 달 뒤에 죽는다면 하고 싶은 일 있어요?”

잠시 최면에서 빠져나왔는지, 대뜸 선배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말았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래요.”

“그거, 누가 한 명언 아니에요?”

“맞아요.” 선배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장난이고, 죽을 때까지 식물을 길러 보고 싶어요.”

“식물이에요?”

“네. 죽기 전까지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하면 편해질 것 같으니까요.”

웬지 설득력이 있었다. 생각해 보니 이런 식물 키우기를 그 애와 함께해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서 근처 꽃집에 들렀다. 웬만해서는 작고 관리가 쉬운 종을 원했다.

“저기, 혹시 요즘 키울 만한 식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장미를 관리하던 여성 점원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처음 식물을 키우시는 거라면, 선인장이 좋을 거예요.”

“선인장이요?”

“네. 관리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렇게 추천하고서는 화분 하나를 들고 왔다.

“애로 추천해요. 금항환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가시가 촘촘하게 박혀 있고, 크기가 작은 선인장이었다. 웬지 쉽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

“이걸로 두 개 주세요.”

카운터로 가서 결제했다. 그리고 나서 점원은 키우는 방식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면 되고요, 겨울철에는 실내에 들여놓고 키우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왔다.

집에 화분을 두 개 들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엄마가 놀라셨다.

“웬 선인장?”

“키워보고 싶어서.”

“그런데 왜 두 개나?”

“둘 다 키워보고 싶어서.”

솔직히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두 개나 키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굳이 두 개를 사 온 아들의 행동에 역시 엄마는 의아해하셨다. 다음 날 바로 한 개가 사라진다는 것도 의아해하시려나.

다음 날 택시를 타고 그 애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그 애한테 이걸 선물해 주기 위함이었다.

“웬 선인장?”

어제 엄마가 보이신 반응과 지나치게 닮아 있어서 웬지 데자뵈를 겪는 듯했다.

“죽기 전까지 한번 키워봐.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창가 근처에 화분을 놓았다. 그 애가 있는 침대가 창가에서 가깝기도 했기에 그리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쉽게 선인장에 다가갈 수 있었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러라고 사 온 거기도 하고.”

“고마워.”

그 애가 웃으며 감사를 표했다.

“선인장의 꽃말이 뭔지 알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기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열정, 정열, 무모한 사랑이래.”

더운 사막 지역에서 산 식물의 꽃말이었다. 그럼 난 이 애한테 열정을 선물한 게 되는 걸까.

“열정, 정열, 무모한 사랑.” 세연이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세 단어를 되뇌었다.

“아, 기타 치고 싶다-.” 세연이가 갑자기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혼잣말이 화제를 확 바꿔버리는 바람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다.

“집에 기타 있는데, 가져올 걸 그랬나?”

“병원에서 그러는 거 민폐잖아.”

“옥상에서 치면 돼.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서 열려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져다 달라고 할까?”

“기타, 집에 있는 거면 내가 가져다줄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부모님이 귀찮아하실 수도 있고.”

“아, 그러시려나?”

“응. 그러니까 내가 내일 가져다줄게.”

“진짜로?”

“응.”

그리하여 나는 또 그 집에 다시 가게 되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로비 앞에 서서 호수를 누르고 인터폰을 연결했다. 세연이의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거라 집에 들어서 깔끔한 차림으로 갈아입고 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세연이 친구 강유성이라고 합니다. 세연이한테 기타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답이 나오는 대신 로비 문이 열렸다. 하필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라 계단으로 17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다행히 지금 계절이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라서 땀을 흘려도 티는 나지 않았을 거다.

다시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곧바로 위장 패턴 무늬의 반팔 티셔츠에 평범한 사복 반바지 차림의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기타라면 이걸 말하는 거지?”

세연이의 오빠로 보이는 사람이 기타 케이스를 건넸다.

“네, 맞아요.” 기타를 받아 들고서 문득 궁금해져 물었다. “혹시 세연이 오빠이신 건가요?”

“응. 이름은 이세휘라고 해.”

세연과 세휘. ‘세’자 돌림인가? 그런 사소한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세휘 씨가 돌연 당황할 만한 질문을 했다.

“그나저나 넌, 세연이 남친이야?”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당황했다. 어버버 거리는 사이 세희 씨는 호탕하게 웃었다.

“뭘, 남친에 준하는 정도로 보이긴 하네. 아무튼 잘 부탁한다.”

라며, 악수를 청했다. 어색한 표정을 짓고서 그 악수를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아참, 핸드폰 번호 좀 주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세희 씨가 건넌 스마트폰에 내 번호를 찍어서 돌려드렸다. 솔직히, 세희 씨와 다시 만날 수 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인의 번호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가라.”

빨리 가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조급해져 계단을 1층까지 빠르게 내려갔다. 계단은 올라가는 게 힘든 거지, 내려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말이다.

다음 날 기타를 가지고 세연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세연이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세연 양은 검사받으러 갔어요.”

너스 스테이션(nurse station)에 가서 물어보니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알겠다고 대충 대답하고서 병실로 들어가 침대 옆의 의자에 앉았다.

문득 사물함이 눈에 띄었다. 선반에는 소설책 몇 권과 함께, 그 애가 가지고 다니던 노트가 눈에 띄었다. 손에 잡긴 했지만, 펼쳐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애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을뿐더러, 또 괜히 열어봤다가 후회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내용은 보지 못한 채 다시 선반에 올려두었다. 타이밍도 좋게 세연이가 병실로 들어왔다.

“어, 와 있었네?”

“응. 기타 가져왔어.” 기타를 가리키며 말했다.

“기타, 오랜만에 연주해 보네.”

기타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겨울이라서 조금 춥긴 했지만, 패딩 덕에 버틸 만은 했다. 문제는 패딩에 얹디얹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 그 애겠지만.

“으으, 춥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으로 들어갈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벤치에 앉았다. 뒤쪽에는 작은 나무가 심어졌고, 앞으로는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높은 펜스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런 풍경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쪽에서 지퍼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서 기타를 몇 번 튕겼다. 그러고서는 핑거스타일로 잔잔한 곡을 연주하고는, 그걸 반주 삼아 노래하기 시작했다.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²⁾

잔잔한 겨울의 이별에 관한 노래였다. 웬지 그런 가사가 나에게 하는 말과도 같았다. 솔직히, 조금 울컥했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냈다.

“울 것 같아. 감정이 너무 잘 전달됐어.”

“히히, 고마워.”

웬지 모르게 슬펐던 감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슬픈 감정은 놀람으로 바뀌고 말았다.

세연이가 벤치에서 옆으로 푹 쓰러졌다. 내 허벅지를 베개 삼아 눕는 모양이 되자 순간 당황해 버렸다.

“나,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장난 아니고,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머리를 제대로 놓아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근처 아무 간호사를 붙잡고 상황을 설명했다.

스트레처라고 불리는 이동용 침대에 실려 세연이는 어디론가 실려 갔다.

혼란스러웠다.

집에 돌아가기에도 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연이의 근처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 지라 세연이가 없는 병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놀란 마음을 추스르다가, 가족에게라도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내 핸드폰에는 세희 씨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던 지라 바로 연락을 드릴 수가 있었다.

전화를 건 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세희 씨가 왔다. 숨을 헐떡거리는 걸 보니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뛰어온 모양이다.

“이세연!!” 세희 씨가 숨을 고르면서 다급하게 물었다.

“세연이는 검사받으러 갔어요.”

“별일 없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 말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는지 세희 씨는 더욱 초조해했다.

“일단 앉으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내가 앉아 있던 의자를 세희 씨에게 양보했다.

다행스럽게도 곧 병실에 세연이가 휠체어를 타고 왔다.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라, 오빠 언제 왔어?”

“아…… 다행이다.”

세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리기라도 했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난 괜찮아.” 세연이는 오빠를 위로라도 하듯 그렇게 말했다.

“걱정했잖아.”

“미안. 히히. 휴가 나온 거야?”

“응. 어제저녁에 나왔어.”

2) <눈사람> (작사: 아이유, 작·편곡: 김제휘, 노래: 정승환) 中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다. 아, 얘는 내 친구. 강유성이라고 해.”

웬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제도 만났어. 기타 전해달라는 거 때문에 집에 오던데?”

“아, 그랬어? 해해.”

남매는 서로 사이가 좋은 듯 보였다. 보통은 맨날 싸운다던데, 역시 나이 차가 많으면 우애가 돈독하긴 한가 보다.

“아, 근데 나 좀 피곤한데. 진짜 미안한데 나 좀 자도 될까?”

“꼭 자. 환자한테는 잠이 약이니까.”

“그럼 나 좀 잘게.”

그렇게 말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드러누워 눈을 감자마자 거의 바로 숨소리가 바뀌었다.

“피곤한 것 같으니 자리를 피해주는 게 좋겠지?” 소곤소곤한 목소리로 세휘 씨가 말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소곤소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연이의 휴식이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병실을 나와서, 병동 중앙의 의자에 앉아 세휘 씨와 대화를 나눴다.

“그나저나 또 만나네, 세연이 남친.”

장난스럽게 말하는 그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다.

“남친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럼 썸남이라고 하지, 뭐.”

여기서 더 반박해봤자 소용없다. 단념하고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서, “그나저나 오빠분께서 오셨네요.”라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응, 부모님께서는 일 때문에 바쁘시거든. 반면 난 지금 정기 휴가로 놀고 있고.”

‘휴가’라는 말을 들으니, 세휘 씨가 직업 군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의식했다.

“아, 직업 군인이라고 들었어요.”

“응. 세연이가 말한 모양이네.”

그렇다고 대답하니 세휘 씨는 세연이가 가끔 짓는 웃음처럼 후훗, 하고 웃었다.

“세연이랑 나랑 몇 살 차이게?”

“몇 살 차인데요?”

“8살.”

“많네요.”

내 말에 호기롭게 웃었다.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눈치였다.

“많다고 느끼는구나. 역시 당연한 건가? 세연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해에 세휘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다. 그런 상상을 하니 정말로 나이가 많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넌 세연이랑 동갑인 거야?”

“네. 06년생이요.”

“너도 꼬맹이었구나, 야.” 또다시 호기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튼, 세연이랑 잘 지내줘. 나중에 어른 되면 같이 술 한 잔 마시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도 마실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만 있다면 그럴 의향이 없는 건 아니었다.

2

그날 밤 또 꿈을 꾸었다. 하민이가 다시 한번 꿈에 나온 것이다.

“잘 살고 있어?”

낮은 키에서 그런 말이 들려왔다.

“잘 살고 있다.”

“다행이네.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근데 네가 하라는 건 못 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괜찮아. 곧 알게 될 거니까.”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하민의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다.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했을 때, 아쉽게도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꿈에서 깨고 나서 웬지 곧 알게 될 거라는 그 애의 말이, 뇌리에 박혀 있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세연이의 병원을 찾았다. 역시 조깅 대신 그 병원까지 뛰어서 갔다. 조깅해서 뛰나, 병원까지 뛰어서 가나 어차피 다들 바는 없었기에 굳이 생산성 없이 공원에서 땀 바에 병원으로 뛰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었다.

카운터에 갔더니 세연이가 1인실로 병실을 옮겼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층 더 높은, 기소병 중증 환자 전용 병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세연이가 그렇게까지 중증은 아닌 탓에, 면회는 제한 없이 가능하긴 했다.

하지만 아침 일찍 가니까 세연이는 자리에 없었다. 다시 카운터에 물어보니 간호사가 깜박했다면서, 대규모 검사가 있는 탓에 저녁때쯤에야 돌아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병원을 나와 시간을 보낼 곳을 찾았다. 그냥 병원 근처에서 아무거나 할 것만 있으면 됐다. 그러다 문득 주얼리샵이 눈에 띄었다.

가게 문을 여니 풍경이 띠링 하고 울렸다. 안에서 대머리인 남자 점원이 나왔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나?”

“아뇨, 딱히 찾는 건 없어요.”

“아, 예.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친절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하기가 찾는 것도 없으면서 구경한다고 하면, 그저 ‘구경꾼 B’로만 보일 거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개의치 않고 나는 유리로 된 전시함 속의 금품들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반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간이 흘러 병원에 다시 왔다. 저녁 6시. 대충 이 정도 시간이면 올 것 같았다. 604호 문을 여니 다행히 세연이는 병실에 있었다.

“너, 진짜로 매일 오는 거 아냐?”

병실에 들어온 나를 보고 그렇게 말했다.

“나 아니면 매일 올 사람 없잖아.”

“하긴, 그렇긴 해. 아무튼 매일 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쁘긴 하네.”

세연이가 평소와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웬지 그런 웃음을 지으니 정말 중증이 맞는 걸까, 하고 의심이 들기도 했다.

“우리, 진실게임이나 할래?” 문득 세연이가 제안했다.

“갑자기?”

“응, 갑자기.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직접 묻지 그래?”

“아냐, 그러면 재미도 없고,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진실게임이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되나?”

“유성아, 너 거짓말할 거야?”

폭 짚리는 말이었다. 사실 질문에 따라 거짓말을 살짝 첨가할 수도 있었으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세연이가 주먹을 내보였다.

“그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구호가 병실에 울려 퍼지고, 승부가 결정됐다. 내 쪽이 주먹을 냈고, 세연이 쪽이 가위를 낸 것이다.

“으으, 아깝다. 이번 한 판만 할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으려나?”

세연이는 아쉽다는 투로 그렇게 토로했다.

“오케이, 뭐 마음대로 해. 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 아무거나 물어봐. 가슴 크기가 됐든, 좋아하는 상대가 됐든, 아니면 고민거리가 됐든.”

“되게 선심 쓰듯 말하네.”

“빨리 물어봐. 나 질문거리 잊어버리게 하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나서 고민을 좀 했다. 질문거리를 생성하려 고군분투하는 나를 옆에서 세연이가 자꾸 보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생각해 내고 있었다.

“약지 둘레, 몇이야?”

“갑자기? 뭐, 약속은 약속이니깐 알려주긴 해야지. 아마 56밀리미터일 걸?”

“오, 이걸 아네? 아는 사람 드물던데.”

“반지 맞춘 적이 있거든. 금방 잃어버렸지만.” 세연이는 아쉽다는 투로 그렇게 말했다.

“근데 왜?”

“보통 사람의 손가락 크기는 약지 크기에 비례하거든. 손가락이 꽤나 예쁘길래,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물론, 근거는 없었다.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즉석에서 지어낸 이야기였다. 그런 근거 없는 칭찬에 세연이는 민망했나 보다.

“손가락 예쁜 거, 나도 알고 있거든?”

“뭐 알고 있으면 다행이네.”

“……그럼 나 해도 되지?”

“응.”

또다시 구호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세연이의 바람대로 세연이의 승이었다.

“자, 이제 내가 질문할 차례인 거지?”

“응. 마음대로. 넌 내 거 물건 사이즈 물어봐도 돼.”

“뭐래.” 퍽, 한 대 얻어맞았다.

“음……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질문을 듣고 나서, 솔직히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했다. 하지만 굳이 내색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난, 사라질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게임이었기에 유무에 관해서만 살짝 이야기해 줬다.

“있어.”

“오, 누구?”

“알고 싶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세요.”

또다시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번엔 내가 이겼다.

“웃, 진짜 궁금한데. 빨리 질문 들어가자.”

“음—— 넌 그럼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응.”

“예?”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

“누구??”

솔직히 나도 놀랐다.

“이건 절대 말 못하지롱. 진실게임에서 질문으로 해도 묵비권 사용할 거지롱.”

“그럼 나도 묵비권 사용한다?”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이 사라진 모양이다. 뭐, 아쉬운 처지가 누구인가.

“모르겠고, 그럼 다음 판 하자.”

또다시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번엔 세연이가 이겼다.

“앗싸! 그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만났어?”

“비밀.”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

대답 대신 묵비권을 행사하며 실실 웃자 세연이는 금세 포기하는 기색을 보였다.

“알려주기 싫으면 알려주지 말든가.”

라며, 잔뜩 찌진 얼굴로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빠졌냐?”

“그래, 짱 빠졌다.”

대체 요즘 누가 ‘짱’이라는 말을 쓴단 말인가. 그런 말투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빠졌다니까!”

솔직히 여기서 달래주지 않으면 평생 저주당할 거란 생각에 무서워져서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꺼냈다.

“먹을래?”

잠깐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반대쪽으로 뺨 돌렸다.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내가 그런 거에 넘어갈 것 같아?”

어머, 이거 진짜로 화난 것 같은데. 겨우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다니, 참 속도 좁네. 그렇

게 생각하면서도 침대 위에 앉았다.

“진짜로?”

“응.”

세연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역시 단단히 빠진 모양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까. 전부 대답해 주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좋아하는 사람의 정체를 알려줄 말이 떠올랐다.

“병에 걸리고 난 지 1년 좀 못 됐을 거야, 그 애랑 처음 만난 거.”

그렇게 넌지시 말하고는 일어서서 병실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보고 계신 TV를 영혼 없이 보고 있었다. TV의 내용 대신 TV 그 자체를 보고 있었기에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내일 연말이네.”

옆에서 같이 TV를 보시던 엄마가 문득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니 내일이 12월 31일이었다. 한 해가 손쉽게 떠나가게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다.

생각해 보니 분명 나는 올해 안에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멀쩡히 살아 있다.

수명이 제로인데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부조화 때문에 기분이 오묘해졌다. 마치 배터리가 0%를 넘어 -30%인 스마트폰이 작동되고 있는 걸 보는 듯했다. 정신적으로 머리가 아팠다. 뇌에서는 배배 꼬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3

연말에도 어김없이 세연이를 만나러 병원에 갔다. 애초에 가지 않을 이유도 없었으니까 말이다.

사실 어제 단단히 빠져 있었던 것을 제대로 풀지도 않고서 말 한마디만 던져 주고 병실을 나섰기에, 세연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잘 상상이 가지 않았다. 다행히도 이건 나의 기우였다.

“어, 왔어?” 평소와 같은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병실에 들어온 나를 반기는 세연이를 보고서, 다행히 어제 던진 말에 기분이 풀렸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야 뭐 매일 오지.”

“네 일상에서 귀찮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괜찮겠어?”

“뭐, 나쁘진 않아. 어차피 내 선택으로 오는 거기도 하고. 거기다 넌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렇게 말하고서도 정말로 그랬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보니 세연이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와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온 것이다.

“하긴 그렇긴 해. 매일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심심하지는 않아.”

“그거 다행이네. 사실 오늘 오지 말라고 할까 봐 좀 그랬어.”

“내 쪽이 먼저 그럴 일은 없을걸?”

“어제 네가 된통 빠지는 바람에 살짝 겁이 났거든.”

“아……. 어제.”

어제의 일을 떠올리던 세연이의 얼굴에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제 일은 잊어줘.”

“뭐, 가능하다면.”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말이다.

“아참,-” 세연이에게 줄 것이 있었다. 매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서 그녀에게 건넸다.

“선물.”

“이게 뭘데?”

돌연 선물을 받자, 당황 반 기대 반의 얼굴을 하고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그때 주얼리샵에서 보았던 백금 반지였다.

“어머? 이게 뭐야? 반지?? 갑자기???”

원손으로 입을 가리고 놀란 표정을 한 세연이가 반지를 케이스에서 꺼냈다.

“연말 선물.”

“남자한테 반지 선물 받는 거, 그거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이뤄져서 다행이네.”

“진짜 고마워!”

세연이가 반지를 오른손 약지에 끼보았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에 잘 어울리는 반지였다.

“와, 딱 맞아. 어제 약지 사이즈, 반지 사주려고 물어본 거였어?”

“그거 아니면 보통은 안 물어보지. 참고로, 어제 했던 말, 그거 근거는 없는 말인데, 손가락 예쁜 건 사실이야.”

“와, 센스 좋은데? 나, 진짜로 기뻐. 까아-!”

진심으로 기뻐하는 세연이의 반응을 보고 나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나저나, 연말인데 뭐 할 건 없어?”

세연이가 반지를 마음에 드는 듯 바라보다가 나에게 문득 물었다.

“곧 죽을 마당에 할 게 뭐가 있나. 연말, 그거 뭐 큰 의미가 있나? 그나저나, 남은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하지?”

문득 생각이 나서 세연이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마 나는 못 할 것 같아. 애초에 다 할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그녀는 체념하듯 그렇게 말했다.

“그래도…….”

“그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하고 죽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 붙잡고 싶었던 것을 힘겹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듯한 말투였다.

어떻게 해주고 싶긴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비참한 기분이었다.

그대로 침묵이 이어졌다. 숨 막힐 것 같은 침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마침 세연이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면, 네가 그걸 대신해서 해볼래?”

그렇잖아도 생각이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걸 정한 당사자가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해볼까, 했는데 그 애는 전혀 상관없다는 눈치였다.

“너만 상관없다면.”

생각해 보니 세연이와 버킷리스트를 함께했던 이유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도 하니까 나에게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기꺼이 동의했다.

“그걸 그냥 날려버리긴 아까우니까 너한테 맡기는 것도 좋은 생각 같아. 그럼, 잘 부탁해.”

저번에 몰래 볼까, 하고 생각만 했었던 노트를 선반에서 꺼내 나에게 건넸다. 그 안에 사적인 내용은 없었는지, 내용을 보는 것에 있어 그리 꺼리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맡겨줘.”

그 말에 세연이는 믿음직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보였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먹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출장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미팅 때문에 서울에 가서서 나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충 저녁을 라면으로 혼자 때우고 세연이에게서 받은 노트를 펼쳐 보았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웬만한 항목들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은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가령 ‘다른 성별로 하루 동안 살아 보기’라든가, ‘드래곤이 불을 뿜을 때 소방 호스로 불을 꺼 보기’라든가. 다른 성별이 되려면 ‘트랜스젠더가 된다’라는 길이 있긴 했지만, 굳이 내 인생을 바쳐서까지 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되면 ‘하루 동안’만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역시나 판타지에서나 가능한 내용을 제외하면 전부 체크가 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도 웬만한 건 다 체크가 되어 있어서 팔랑팔랑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중간에 빼먹은 것이 하나 있었다. 페이지 수를 세어 보니 열네 번째 페이지였다.

‘인간관계를 최소한까지 끊어내고 나 혼자서 죽기’

왠지 나와서의 관계를 단절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그 항목이 신경 쓰여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런 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몰래 집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니 시간이 밤 11시 반이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이미 카운터에는 사람이 없었다. 면회 허용이 나질 않으니 병실에는 몰래 갈 수밖에 없었다.

병실의 불들은 다 꺼져 있었다. 하기가 지금 시간에 병원이라면 다들 자고 있을 시간인 건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604호실 문 앞에 도착했다. 불투명한 창에서는 백색 LED등은 꺼져 있었고, 대신 미약한 형형색색의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뭐지, 스마트폰이라도 하는 걸까. 조심스럽게 미닫이문을 열고 병실로 조용히 들어갔다.

“이세연.”

문 쪽을 등지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던 세연이가 흠칫 놀라 뒤돌아보았다. 나를 보고 세연이는 몸을 일으켰다.

“어? 이 시간에 왜 왔어?”

“췌. 너 보고 싶어서.” 농담이었지만 역시 오글거리는 멘트였다.

“푸흠, 그게 뭐야.”

평소와 같이 대하는 그 애의 태도를 보고 내가 했던 걱정이 기우였음을 인지했다.

세연이가 꺼놓은 스마트폰 불빛만이 유일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다. 이 병실에는 우리 둘 뿐이다.

“2024년이 오기까지 3분 남았네.”

세연이가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며 그렇게 말했다. 제야의 종 타종 실시간 영상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23시 57분. 나도 2024년에는 살아있긴 하구나. 신기할 따름이었다.

“신기하네. 내년에는 시체 상태일 줄 알았는데.”

세연이가 나지막이 그렇게 말했다. 그 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점도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래도 내후년에는 못 살겠지?”

“…….”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아직 증상이 재발하지 않아서 내년까지 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긴 하지만, 세연이는 이미 증상이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러면 한 달 이내로 죽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증상이 재발한 후 한 달을 넘긴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그 애에게는 한 달 넘게 살 희망이 없다.

“어, 카운트다운 시작했다.”

그런 슬픈 분위기를 단숨에 깨버리듯, 그 애는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들려왔다. 1년이 싱겁게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을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다.

“2024년이네.” 씩씩하다는 듯 세연이가 그렇게 말했다.

“19살이 됐다, 이건가.”

원래라면 대입을 준비했어야 할 나이다. 하지만 대학을 다녀도 아무런 의미도 없을 테고, 애초에 한 번이라도 강의에 출석할 확률이 극히 드물기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원래라면 고3일 나이일 텐데. 수험 스트레스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나쁘지 않은 건가?”

“전화위복이네.”

그런 농담을 던지니 세연이는 쿡쿡 하고 웃었다.

“그나저나 좀 졸리다. 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나, 간다.”

“잠깐만, 나 부탁이 있는데.” 의자에서 일어서려는 나를 세연이가 붙잡았다.

“나 잠들 때까지만이라도 옆에 있어 주면 안 돼?”

“갑자기?”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져서.”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는 나에게 등을 보이는 그 애 옆에 와서 누웠다. 침대의 크기가 1인용이라 좁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누울 정도는 아니었다.

“안아줘. 그 이상은 안 돼.” 세연이는 선을 긋듯 그렇게 말했다. 나는 말없이 그저 복부에 팔을 감쌌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잘 자.” 나지막이 그렇게 말했다.

30분 정도 지나니 옆에서 들려오던 숨소리가 변했다. 자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병실을 나왔다.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터라 조금 찻찻한 감은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던 것 같았다.

4

새해 첫날부터 나는 병원에 가게 되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목적이 달랐다. 병에 걸린 지 1년이 넘었는데, 죽기는 고사하고 아직 입원조차 하지도 않고 있으니 말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는지,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손을 이끌고 병원에 갔다.

다시 그 기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채혈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하고 나서, 의사가 진료실에서 말했다.

“앞으로 4개월은 더 버틸 것 같습니다.”

4개월. 지나간 1년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좀 길었다.

이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병원에 간 김에 세연이를 만나러 갔다. 세연이를 만나러 가는 게, 이제는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매김했으니까. 하지만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니 직원으로부터 유감스러운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세연 양은 지금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

하지만 웬지 지금이 아니라면 만나러 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직원에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보았다.

“진짜로,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만날 수는 없을까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잠깐이나마 얼굴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당한 사유’랄 것을 나는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결국 정당한 사유를 생각해 내지 못하고 세연이를 만나러 가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며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내리고 내려서 쌓이고 있었다. 바람 때문인지 눈보라는 사선으로 내리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켜서 다음 버스가 어디쯤 있는지 검색했다. 한 시간 뒤에나 우리 동네로 가는 버스가 온다. 차라리 그럴 거면 뛰어서 가고 말지. 하지만 길이 미끄럽기도 하고, 눈이 내릴 정도로 춥기도 해서 뛰어가기 싫었다. 그저 병원 근처를 거닐 수밖에 없었다.

계속 걸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중간에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렀다. 나와 비슷한 포대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나에게 주문을 요청했다. 평소라면,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저 자

리에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오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주문하고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다. 의자에 앉으면 창문 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 공부나 작업 같은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1인석이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내 음료였다. 쟁반 위에 올려진 플라스틱 잔에 따라진 짙은 갈색의 아메리카노. 자리로 가져가 한 모금 빨았다. 역시 차갑긴 하다. 창밖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차가운 커피를 빨고 있을 뿐이었다. 왠지 그러니까 반대의 이미지면서 동시에 비슷한 이미지라는, 그런 모순적인 생각이 들었다.

커피를 다 비우고 얼음을 오독오독 씹으면서 세연이한테 카톡을 보냈다. 팬스레 걱정이라도 되어서였다.

[뭐해? - 20:12]

좀처럼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팬스레 불안해져 한 번 더 카톡을 보냈다.

[오늘 너 보러 병원에 갔는데, 못 보고 그냥 가게 됐어. - 20:18]

역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불안감은 배로 늘어가고 있었다.

팬스레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그럴 리는 없었지만 말이다. 보통 아무리 짧아도 입원한 뒤로 10일을 못 버틴 환자는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기록되었던 통계가, 검증할 수 있는 의사가 그렇게 설득했지만, 불안감에 휩싸였던 나는 쉽사리 설득되지 않았다.

급기야 불안했던 나는 세연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연결음이 세 번 이상 지속되었다. 결국 몇 번 더 올린 끝에 TTS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오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다. 세 번 정도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아 단념했다. 그래, 살아있겠지. 만에 하나 죽었다고 해도 이상할 일은 없기도 하니까. 그렇게 자기위로를 했다.

카페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고 있었다. 버스가 오기까지 5분 정도 남았다. 집에 갈 수는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부우웅. 패딩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세연이가 전화를 건 것이었다.

긴장이라도 했는지 호흡이 떨려오는 게 느껴져서, 심호흡을 세 번 하고서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여전했다.

“왜 전화했어? 그것도 세 번이나.”

세연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오늘내일하는 사람처럼.

“그냥, 걱정돼서.”

“웬 걱정?”

“오늘 병원에 갔는데, 면회 금지당했거든.”

“아, 그래서 걱정됐구나.”

“그럼 계속 못 만나는 거야?”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볼 수도 있어.”

상태가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면회까지 금지할 정도니까 말이다.

“걱정 마, 빨리 회복해서 너 볼 수 있게 할 거니까.”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렇게 바랄 뿐이었다.

다행히 세연이는 나흘이 지나서 면회 금지가 풀렸다. 하지만 다시 만난 세연이는 역시 야위어 있었다.

“오랜만이야.”

침대에 누워 힘 하나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웬지 계속 나를 기다려 왔다는 듯이 들렸다.

“고생이 많다.”

“아냐. 해해.”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불안함이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숨기려고 하는 듯했다.

“다행히 상태는 나아졌나 보네.”

“응. 전에는 말을 내뱉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말도 잘할 수 있잖아.”

“그 정도였어?” 솔직히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힘든 생활을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슬퍼졌다.

그 이후로 정적이 흘렀다. 그래도 좋았다. 웬지 그 애와 있으면 마음은 편해졌다. 그래서 세연이를 만나러 병원에 오는 게 일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있지, 유성아.”

세연이가 문득 정적을 깨고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에는 역시 힘도 없었고, 거기다가 미세하게 떨리기까지 했다. 웬지 고민 끝에 이야기를 어렵게 꺼낸 듯했다.

“말해.”

“내가 죽으면, 넌 슬퍼할 거니?”

웬만한 경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조금이나마 슬퍼한다. 나에게 있어 ‘세연이가 죽는다’라는 경우는 ‘웬만한 경우’ 중에서 한가운데에 있다.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응.”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역시 주변 사람이 죽으면 슬프겠지.”

“그게 너라면 더욱.” 솔직한 내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대답했다.

세연이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러고서는 닷새 전에 든 의문을 해결해 줬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말아줘.”

가슴이 철렁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세연이의 요구에는 각자의 장단점이 하나 있었다.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끊어내고 나 혼자 자서 죽기’가 무슨 의미인지 해결했다는 것은 물론 장점이었다. 하지만 단점도 아주 분명히 있었다.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끊어내고 나 혼자서 죽기’가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 웬지 그런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응.”

그런 대답을 하고 나서,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나는 병실을 나섰다.

그저 잊으려고 했다.

이세연이라는 여자애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다. 기껏해야 2개월 정도려나.

인생 끝자락에서 잠깐 왔다 간, 그런 여자애다.

어차피 둘 다 죽어서 곧 헤어지게 되는 건 매한가지다.

남은 수명 4개월 안에, 그 애는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지만 납득이 전혀 되질 않는 건 왜일까.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조금, 울었는지도 모르겠다.

5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정신적으로 좀 어지러웠다. 머릿속을 들여다보니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방을 보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나는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것도 얇은 잠을 잤는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다. 세연이가 내 아내가 되는 꿈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이없다.

하지만 꿈에서만큼은, 행복했다.

그런 이룰 수 없는 행복한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 공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차가운 색감의 방, 겨울 아침의 쌀쌀함. 항상 보는 것들인데 이토록 공허한 느낌은 참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 누워만 있고 싶었다. 너무 피곤해서 조깅하러 갈 힘도 나지 않아서 이불을 덮고 다시 잠들었다. 다시 일어났을 때는, 식탁에 엄마의 집밥이 차려져 있을 때였다. 시간은 12시. 꽤 많이 잔 것 같아서 자동으로 눈이 떠진 것이었다. 생각해 보니 어제 잠을 설치는 바람에 새벽 5시쯤 잠들었구나. 요즘 왜 이리 잠을 설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아들, 밥 먹어라.”

부엌에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만 하고는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했다.

그리고 보니 요즘 내 상태는 세연이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항상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웬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모순된 기분. 그런 기분을 요즘도 다시 느끼고 있으니, 죽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아주 조금 들었다.

일어나서 일단 밥이나 먹어야겠다. 서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책상 위를 보니 그 애가 남긴 노트가 있었다.

‘버킷리스트’

지금 와서 왜 눈에 띄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나는 흘린 듯이 책상 앞에 서서 그 노트를 펼쳐 보았다. 웬만한 항목은 체크가 되어 있는 앞의 몇 장을 넘겨서, 적

혀 있는 맨 마지막 페이지를 살펴보았다.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끊어내고 나 혼자서 죽기’

그게 눈에 띄었다. 앞쪽도, 뒤쪽도 아닌 거의 한가운데에서 살짝 치우쳐진 곳에 있던 항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애한테 남은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이제 완성되었겠지. 나한테는 어떠려나. 세연이와는 그쪽이 먼저 연을 끊었으니 됐고, 이제 남은 건 기현 선배나 세희 씨 정도려나.

이 항목, 꽤 힘든 거였구나.

밥을 먹고 나서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끊어내고 나 혼자서 죽기’ 항목의 바로 위에 있던 항목을 해보기로 했다. 세연이와 연은 끊겼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드림캐처 만들어 보기’

이게 그 항목의 내용이었다. 되도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고르려고 했는데, 그게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끊어내고 나 혼자서 죽기’ 다음으로 눈에 띄는 항목이라서 그걸 골랐다.

재료를 구하기 위해 오랜만에 다이소에 들렀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드림캐처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철끈, 십자수 실, 샤무드 끈, 비즈. 간단한 재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구할 정도는 아니었다.

집에 와서 유튜브 영상을 보가면서 드림캐처를 만들었다. DIY는 처음이라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완성은 했다.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어때?”

신바람이라도 났는지 드림캐처를 들고 가서 엄마한테 자랑했다.

“이게 뭐야?”

“드림캐처. 잠자리 근처에 걸어놓으면 악몽을 잡아준대.”

“그런 것도 있었구나.”

엄마는 드림캐처를 신기하다는 듯이 보셨다. 하기야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말이다.

“고생했어.”

엄마의 격려에 기분이 살짝 나아졌다.

하지만 그 격려가 무색하게, 곧 기분이 우울해졌다.

이제 그 애와는 같이하지 못하는데, 해서 뭐해?

“유성 씨!”

카페에서 일 중인데 저도 모르게 명을 때리고 있었다. 그랬던 모양이다. 기현 선배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포스기 앞에 서 있던 나를, ‘애 대체 뭘 생각을 그렇게 하길래 손님 앞에 두고 주문도 안 받는 거지?’라는 투로 불렀기 때문이다.

“아, 죄송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으시죠?”

아차, 세상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어리바리한 나를 보고,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아니, 저, 그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 애는 이상한 사람을 보듯 시선 처리가 차가웠다. 요즘 애들 무섭다고 생각되는 참이었

다. 물론 나도 ‘요즘 애들’에 속하긴 하지만 말이다.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었다. 한 달 정도 일하게 되니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된 거다. 음료를 쟁반 위에 올려두고 손님을 불렀다.

“유성 씨,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손님이 음료를 가지고 자리에 앉자, 기현 선배가 나에게 따뜻한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실 따뜻함은 페이크고 널 혼내려고 하고 있단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기에, 우선 사과부터 했다.

“죄송해요.”

“아네요, 괜찮아요. 사과 안 해도 돼요. 얼마나 큰 고민이면 손님을 앞에 두고 주문도 안 받고 멍하니 서 있나 싶어서. 부담이라도 줄여주고 싶은데, 사정을 좀 말해줄래요?”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기현 선배는 안심하라는 듯이 “말 못 할 사정이라도 있으면 말 안 해도 돼요.”라고 말했다.

그런 친절함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기현 선배에게 털어놓았다.

“사실 제 친구한테 큰일이 생겨서 그런데요, 그거 때문에 그랬었나 봐요.”

“친구 얘기?”

내 얘기라고 긍정하는 순간 동정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기에, 3인칭화하여 이야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내 의도대로 친구 얘기란 걸 믿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친구의 여사친이 죽을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여사친이 그 친구한테 일부러 미움을 사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 친구는 여사친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데, 여사친이 밀어내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래요.”

우선 핵심 부분만 뽑아서 간결하게 전달했다. 선배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왜 밀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핵심인데.”

“모르겠어요.”

다시 고개를 떨구고 고민 모드로 들어갔다. 그사이 정적이 흘렀다. 아무런 대화도 없었기도 하고, 손님이라고는 혼자서 노트북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여고생 한 명뿐이니까.

“음, 여사친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것 같기도 해요. 여사친은 자기가 죽으면 그 친구가 슬퍼할 게 뻔하니까, 그게 싫어서 일부러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여사친의 배려가 오히려 본인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하면 그 친구한테는 죄책감이 더 있지 않겠어요? 그 여사친이 죽은 이후로 그 친구는 ‘그 애랑 추억을 왜 쌓지 않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이 쌓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만나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선배는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 일리 있는 설명이라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고마워요.” 진심을 담아 네 글자로 압축해 표현했다.

“이거, 본인 얘기죠?”

네가 뭐라고 말하든 안 믿을 거고 내 추측이 맞을 거야. 그런 속뜻이 나에게 닿았다.

“제 얘기인 거 알고 계셨죠?”

“아니라고 해도 안 믿을 거였어요.”

역시나. 피식 웃는 나를 보고 선배는 또 다른 조언을 해줬다.

“볼 수 있으면 빨리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특히 죽을병에 걸린 애라면 더욱.”

세연이가 나뭇가지 하나에만 의지한 채로 절벽에 매달린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지금 상황이나 그 상황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대로 병원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눈이 오고 있는 바람에 버스가 좀 늦어졌다. 다만, 다행히 저번보다는 적게 기다렸다.

아직은 세연이의 면회가 금지되지는 않은 모양이다.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의자에 살며시 앉았다.

세연이는 정자세로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세연이에게 연결된 환자감시장치가 일정하게 뻘- 뻘- 하고 소리를 내고 있었기에 살아있는 있음을 확인했다.

사흘 만에 보는 그 애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다.

인기척이라도 느껴졌는지 세연이는 실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서는 다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왜 왔어.”

나한테 등을 돌려서 누운 채로 세연이는 차갑게 그렇게 말했다. 역시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미세하게 떨렸다.

“나, 그거까지는 못 하겠더라.”

“.....”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그날 갑자기 왜 다신 만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알 바야? 다시 만나지 말자니까?” 화내는 목소리에는 약간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일부러 미움 사려고 하는 거지?”

“.....” 세연이는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둘 다 아무런 말도 없었기에, 그저 정적 사이에 끼어드는 환자감시장치 소리밖에 없었다.

“.....내가 죽으면 슬퍼할 거 아냐.”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도 감정이 있지만, 남겨진 사람의 감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슬프거든. 특히 감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근데 그 ‘남겨진 사람’에 내가 포함돼 있더라고. 그래서 괜히 너한테 피해 끼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도 너랑 인연이 끊어지는 건 싫은데.”

“.....”

“좋아해. 저번엔 장난이었지만, 이번엔 진짜야.”

내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고백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마저 죽는다니. 가슴 어딘가에서

아련함을 느꼈다.

“안 돼.” 세연이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눈에서 눈물이 나오
고 있었다.

“왜?”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 눈으로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힘겹다는 듯이 진
동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길 바라던 말이 나왔다.

“나도 널 좋아하고 있으니까.”

* * *

‘죽고 싶지 않아.’

그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한테 죽음이란 먼 미래에나 일어날 끔찍한 일이었기에, 그리고
시한부란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시한부 병에 걸렸을 때, 극초에는
와닿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다.

1년 전쯤에 정말 많이 울었다. 덕분에 애먼 가족한테도 별거 아닌 일로, 아니 진짜로 이유
없이 화낸 적이 다수 있었다. 차라리 내일 세상이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왜 하필 나야?

그런 감정이 점차 줄어들자, 이제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이런 걸 해 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짓이다. 하지 말자. 가만히 있다가, 죽어버리는 게 나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허함의 수렁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래.

차라리 미련이라도 없애볼까.

나를 이토록 우울하게 만들고 있던 주범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그냥 언
젠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았다. 머리로부터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막 썼다. ‘잘생긴 뱀파이어에게 피를 빨려 보기’ 같은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들까지 쓰여 있었기에, 그걸 다 할 생각은 없었다. 되는 데까지만 해보자. 그런 마인드였다.
어느 정도 완수한다면 더 이상의 미련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자 점차 의도대로 세상에 미련을 점차 지워나갔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기
타를 배우고, 노래 발성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소설 작법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최
신 스마트폰도 사고, 우리나라의 어디 이름 모를 섬에도 가보고. 보통 미련을 지우는 일을 했
지, 미련을 더 쌓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그랬기에 그때 처음으로 버킷리스
트를 쓰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추가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다가 세상 끝자락에 선 그 남자애를 만났다.

그 남자애 역시 곧 죽을 사람이었다.

그랬던 그 애에게 왠지 동질감을 느꼈다.

저 애와 함께하면, 내 마음속에 남은 허망함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애에게 버킷리스트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다가 그 애에게 끌렸다. 처음으로 만나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에게 연정을 느끼고 좋

아하게 되었다.

그러면 안 됐다. 세상에 미련을 더 놓는 짓이 되지 않느냐.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차라리 만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 애한테 철벽을 쳐라.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는 만나지 말기로.

그리고 그 애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본인의 마음을 고백했다.

* * *

세연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죽음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의 역사를, 그 순간부터의 마음을.

그랬기에 나는 세연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미안. 나 혼자 이기적이었어.”

세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사죄했다. 모든 일은 나의 이기심에서 발현된 거니까.

생각해 보면 세연이는 나를 구제하기만 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나,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네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면 정말로 다신 오지 않을게. 죽으라면 죽을게. 그러니까 나한테 해결책을 줘.”

세연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요구 사항에 적절한 대답을 찾고 있었으리라.

“나, 웬지 알 것 같아.”

세연이가 눈물을 닦고, 인제야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다.

“내 곁에 있어 줘. 세상 미련이 있대도,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아줘. 그리고 나 대신 여명을 살아줘. 만약 천국이 있다면 거기서 곧 만나게 될 거니까, 괜히 네 의지대로 날 따라오지는 말아줘.”

세연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하듯 내뱉었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해 줘.”

삶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는 순간이었다.

삶의 목표를 드디어 정하는 순간이었다.

곳곳하게 살아갈 실마리를 찾았다.

6

그날 이후로 다시 세연이를 만나러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다.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 정도. 좋아하는 애와 연인이 되어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연이가 웃는 얼굴로 후회스러운 말을 하니, 웬지 느낌이 묘했다.

“뭐 어때.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연애하는 거 말이야?”

“응.”

후후후, 세연이가 기분이 좋다는 듯 웃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야 당연한 게, 지금은 저녁 8시니까. 밖에서는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런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병원에 오기 전에 그녀에게 권해보기로 했던 게 떠올랐다. 버킷리스트 노트를 펼쳐봤었는데, 그때 눈에 다시 띄는 것이 ‘드림캐처 만들어 보기’였다. 세연이 거는 만들지 않았다는 게 떠올라서,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나고 제안해 보기로 하고 병원에 온 거였다.

“드림캐처 한 번 만들어 볼래? 난 만들었는데, 네 건 없잖아.”

세연이는 견본으로 가져온 내 드림캐처를 꺼내니 신기하다는 듯이 보았다.

“진짜로 잘 만들었네. 손재주 있는 거 아냐?”

“빈말 아냐?” 그렇게 농담하듯 내뱉었지만, 세연이는 오히려 “아냐. 진짜로 잘 만들었어. 장인이 만든 것 같아.”라며 칭찬했다. 가져오길 잘했네.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요즘 몸이 좀 나아지긴 했거든.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재료 좀 구해다 줄래?”

“알았어.”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잠깐만, 지금 당장 구하려고?”

뒤에서 그렇게 질문이 날아왔다.

“응. 왜?”

“그거,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아마 그럴걸? 나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도구나 재료는 근처 다이소에서 팔 거니까 그거 갖다가 만들면 될 거야.”

“그으래? 그럼 잘 갔다 와.”

그 애의 인사를 받고 병실을 나왔다.

병원 근처에 다이소가 하나 있었기에, 거길 들르면 됐다. 한 800미터 정도 걸으면 도착한다고, 스마트폰 지도 앱이 그렇게 알려줬다.

다이소에서 저번에 구했던 재료들을 전부 기억해 내서 샀다. 어딘가에 적어둔 적도 없어서 이게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가위나 글루건 같은 도구는 이미 집에서 가져왔으니 살 필요는 없었다.

병원으로 돌아와 세연이를 다시 만났다. 세연이는 책상을 펼쳐놓고 그 앞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뭐해?”

문이 열려 있는 병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돌연 물으니, 세연이가 움찔하고는 내 쪽을 바라보았다.

“깜짝이야. 벌써 왔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온 거라 이게 다가 맞는지 모르겠네. 뭐, 맞겠지?”

“뭐 보고 만든 거 아냐?”

“아, 맞네. 나 유튜브 보고 만들었구나.” 그걸 보고 재료를 다 사 왔는지 확인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생각이 짧았다.

“그거 보고 재료 확인했으면 되는 거였잖아?”

내가 방금 생각했던 아쉬움을, 세연이가 잔소리하듯 말했다.

“다 있는지 확인해 볼게.”

스마트폰을 켜서 그 영상을 다시 보았다. 철꾼, 십자수 실, 샤무드 끈, 비즈. 그리고 도구인 가위와 글루건. 다행히 전부 사 오긴 했다.

“다 사긴 했네.”

“자아, 그럼 만들어 볼까?”

결과물은, 그냥 무난했다.

그저 봐줄 만한, 그런 물건이었다.

“완성!”

다 만들고 나니 역시 시간은 꽤 흘러 있었다. 완성 직후에 간호사가 “면회 시간 끝났어요.”라고 알리러 왔으니까.

“수고했어.” 세연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만드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해보자고 한 거니까.”

“후후후.” 세연이가 기분 좋다는 듯이 웃었다.

“나중에 화장돼서 봉안당에 들어가면, 이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원한다면 넣어줄게.”

“고마워.”

세연이가 안기라는 듯이 양팔을 벌렸다. 나는 기꺼이 세연이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리고 안겼다.

세연이의 체온이 느껴진다.

세연이의 깡마른 몸이, 쇠약한 몸이, 내 품에 안겨 있다.

“오늘 밤, 같이 지낼래?”

“됐어.”

천진난만하게 유혹하는 여자친구를 매정하게 거절하는 남자친구에게는 사정이 있었다. 간호사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좀 일이 복잡해질 테고, 양측 부모님께도 걱정을 끼칠 게 뻔했다.

“간호사한테 들키는 건 잠깐 화장실에 숨어 있으면 되잖아?” 세연이가 병실 안 화장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또 똑같이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웬지 그럴싸한 주장인데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여기서 재운다는 세연이의 의지를 꺾기에는 좀 미안해서 잠깐만 있기로 했다.

“너 자면 난 바로 갈 거야.”

그렇게 통보하고는 화장실에 가서 숨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불을 꺼놓은 터라, 화장실 안은 캄캄했다.

담당 간호사가 상태 확인차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이를 확인한 세연이는 화장실 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나와. 간호사 언니 가셨어.”

“간호사 언니라고 하는구나.” 호칭에 관해 살짝 의아해져서 그렇게 말했다.

“친하거든. 그 언니, 여동생이 우리랑 동갑이래. 그래서 여동생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호칭은 편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무난한 것 같아서.”

“하기야 언니가 편하긴 하겠다.”

그렇게 대꾸하고서는 불을 끄고 침대로 올라왔다. 나는 왼편에, 그 애는 오른편에, 같은 베개를 베고, 같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우리는 서로를 로맨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니까 진짜로 로맨틱하다.”

“키스라도 해볼래?”

“됐어.” 왠지 그러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아서였다.

“에이, 그러지 말고.”

세연이가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생각해 보니 그 애에게 첫 키스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었던 참이었다.

그런데.

세연이가 갑자기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서로를 안아주고, 우리는 키스를 했다.

그게 내 인생 말년에 있었던 첫 키스였다.

순백하고도, 담백하고도, 달콤했다. 그런 밤이었다.

다음 날 카페 사장님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이야기했다. 기본 업무부터 시작해 간단한 음료 만드는 법까지 배웠으니, 이쯤 하면 그만뒀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은 옆에 기현 선배도 같이 있었던 지라, 선배도 내가 그만둔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봐요.”

기현 선배가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솔직하게 한마디 해도 돼요? 나 유성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유성 씨, 기소병이라면서요.”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안 거지?

“어떻게 아셨어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성 씨 기소병이라고. 아, 그리고 그 친구분도 같은 병이라면서요.”

“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걸 들킨 아이처럼 나는 그렇게 병쳐있었다.

“뭐라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힘내요. 남은 날도 살아가야지.”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내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요.”

“이 젊은 친구가, 참. 안 됐지.”

옆에서 사장님께서 어렵게 말을 꺼내셨다. 이런 걱정,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다.

별말 없이 나는 카페를 나왔다.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나올 거라 다시 오게 되긴 하지만, 웬

지 오늘이 마지막 업무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윽고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서의 시간이 끝났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기현 선배와 함께 마지막 퇴근길을 걸었다. 이 길도 이제는 거의 갈 일이 없겠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이 길도 유성 씨랑 걸을 일도 없겠네요. 약간 아쉽네.”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걸으며 기현 선배가 말했다.

“마지막 퇴근길이네요.”

“유성 씨는 느낌이 어때요?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걷는 길인데.”

“이제 내일부터 카페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왠지 느낌이 묘하네요.”

“유성 씨가 내일부터는 카페에 없으면 허전하겠네요. 일도 좀 피곤해지겠고.”

“다른 사람은요?”

“아, 다른 사람 뽑겠네요. 요즘 좀 옆구리가 시리니까 동갑내기 이쁜 여자가 들어오면 좋을 텐데.”

선배의 농담에 가볍게 웃었다. 분위기가 좀 더 화기애애해졌다.

그렇게 가다 보니 벌써 헤어져야 할 갈림길이 나왔다. 이 교차로에서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고, 기현 선배는 오른쪽으로 가야 했다.

“그럼,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복시다.”

기현 선배가 손을 흔들며 그렇게 인사했다. 맞받아서 나도 손을 흔들고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해 횡단보도를 건넜다.

다음 날 병원까지 달려가는 걸 조깅 대신으로 했다. 평소와 다르게 이른 아침에 도착한 지라 세연이는 놀란 기색을 보였다.

“어라? 벌써 왔어? 카페 알바는?”

“관봤어.”

“왜??” 어지간히 의아한 게 아니었나 보다. 그 정도로 놀랄 줄은 몰랐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벌써 질려버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좀 질리기도 했다. 음료 만드는 것도 보조 업무일 뿐, 거의 청소나 설거지밖에 안 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세연이한테 하기에는 좀 뭐했다.

“원래도 한 달만 일하고 더 안 할 생각이었거든. 너랑 하루 종일 있어도 되잖아. 아, 그것도 나름 좋네.”

“나랑 하루 종일 있고 싶었어?” 흐흐흐, 하고 세연이가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응. 너랑 평생 같이 있고 싶은데?”

“그건 너무 오글거리는 말 아니야?”

“그래서, 싫어?” 침대 위에 걸터앉으며 세연이의 왼손을 꼭 잡았다.

“……싫지는 않아.”

미소를 속 지어 보이고는, 세연이의 오른손을 잡았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녀에게 나지막이 물음을 던져보았다.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생각해.”

“어라, 그런가?” 의외의 말이면서도, 맞는 말이긴 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버킷리스트를 쓰는 일도 없었고, 옥상에 올라가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하긴 그렇겠네.”

둘 다 병에 걸리지 않게 됐다면, 난 지금보다 더 빨리 죽었겠지. 병에 걸리든 말든, 웬지 그때의 난 자살할 것 같았다. 그러고선 어떻게 내 죽음에 대해 취재까지 허락한다면, 인터넷 기사에나 잠깐 나오고, 알고리즘 때문에 세연이가 그 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겠지. “아, 나랑 동갑인 애가 자살했구나. 아이고, 안타깝네.”라는 식으로.

한쪽만 병에 걸렸더라면, 그 다른 한쪽은 만나봤자 동정만 해주는 엑스트라였으리라.

차라리 둘 다 병에 걸리는 게, 어쩌면 둘을 위한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

“만나서 반가웠어.”

“나도.”

그리고 세연이는 7일을 더 살았다.

제3장

1

정장을 입어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학교라도 다녔다면 교복을 갖춰 입었을 테지만, 진작 때려치웠기에 옛날에 입었던 교복을 다시 입을 필요는 없었다.

아무튼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세연이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세연이의 영정사진 앞에 섰다. 고개를 똑바로 들어 그 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애의 영정사진을 생전에는 보지 못했기에, 나는 영정사진을 보는 것에 조금 기대하고 있었다.

입을 다문 채로,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와중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었기에, 포토샵 처리를 많이 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죽은 뒤까지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구나. 그런 마음이 이해는 갔다.

사람들이 와서 울어줬다. 부모님은 울다가 지친 지 오래고, 종종 그녀의 친구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보였다. 가끔 다른 어른들이 그 애의 부모님을 위로하시기도 했다.

“안녕.”

마찬가지로 상복을 입은 세희 씨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 안녕하세요.”

“세연이 썸남, 맞지? 아니, 이젠 남친인가?”

“네. 서로 연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도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그래, 좋아하니까 서로 사귀었겠지.”

후우, 세희 씨가 한숨을 푹 쉬었다.

“고마워. 네 덕분에 그래도 세연이가 행복하게 갈 수 있었어.”

“받은 게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랬다. 애초 죽었을 목숨을 살려준 게 세연이고, 삶의 원동력을 제시해 준 것도 세연이니까.

“너도 만만치 않게 준 게 많아, 보니까.”

세희 씨가 노트 한 권을 보여줬다. 버킷리스트와 색깔만 다를 뿐, 디자인은 똑같았다.

“뭐예요?”

“세연이 유서. 틈틈이 쓴 모양이야.”

“저한테요?”

“응. 애, 죽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쓴 모양이야. 부모님 거랑 내 것도 따로 있어.”

그 노트를 묵묵히 받으니, 세희 씨는 등을 팡 치고는 밖으로 나갔다.

“어디 가세요?”

“담배 피우러.”

세희 씨의 뒷모습은, 왠지 힘겨워 보였다.

빈소에 들어가서 다시 그 애의 영정사진을 보았다. 여전히 적응은 되지 않는다. 그 앞에서,

나는 그 애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말을 떠올려 보았다.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해.’

그 애의 가족 사이에 끼어 마지막 순간을 지켜줬을 때의 나에게 한정하여 한 말일 거다. 거기 있던 사람 중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그 말을 한 본인과 나뿐이었으니까.

기꺼이.

마치 숙명인 듯이, 나는 세연이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시간 동안, 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자.

세연이가 화장되어 봉안당에 안치될 때까지, 나는 계속 자리를 지켰다. 세연이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 옆에는 그 애의 생전 했던 말대로 드림캐처가 들어갔다. 그 옆에는 장례식 때 보았던 영정사진이 작게 인화되어 들어갔다.

그 앞에서 잠시 묵념했다. 죽은 뒤의 그녀에게 처음으로 하는 인사였다.

세연이의 가족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더 했다. 별 이야기는 아니었고, 세연이의 생전에 그녀와 지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잠시 외출하셨고, 아빠는 아직 퇴근하시지 않아서 집은 비어 있었다. 칼라를 조이는 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와이셔츠 단추를 한 칸 풀었다. 손에 들린 노트와 블레이저를 아무 데나 벗어던지고 방에 들어와 침대 위에 엎드렸다.

그저 평안하게 그러고 있었다. 평안을 찾으려고 할 때 하는 행동이 이거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번뜩 몸을 일으켰다. 세연이가 남긴 노트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책상 앞에 서서 노트를 집었다. 버킷리스트와는 달리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조심스레 표지를 펼쳐 세연이가 남긴 수기를 천천히 읽었다.

데코레이션

-이세연

이 글은, 근 18년밖에 살지 못하는 한 여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글입니다. 네, 그 여자가 바로 접니다.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기소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지금도 많은 의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병입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점점 생산되지 않아, 결국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기들마저 문제가 생겨 죽어버린다는 병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크리스마스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최악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다는 걸 안 직후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죽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며 항상 밝음을 잃지 않던 저에게,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더는 미래가 없다는 거니까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멋진 신랑감을 찾아 결혼해서 소박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쓸쓸히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을 때, 저는 그때 밝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빛을 찾았을 때는 한없이 밝아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건 다행인 일이지요. 그래서, 그 빛을 발견하게 된 경로를, 이 글에 적어볼까 합니다.

병에 걸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그 시기가 좀 이를 뿐이다.’ 드디어 죽음을 인정한 것인가, 싶겠지만, 아쉽게도 반절 정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란 미지의 공간이기에, 쉽게 다가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못한 몫의 반절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인정하기 위한 방법은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미련을 없애자.’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니,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 더군요. 그래서 생겨난 게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아마, 제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미련이란 뭘까요. 뭐 국어사전에선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글에서 새로 정의하자면,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세상에 대해’라는 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이걸 꼭 했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호흡을 내뿜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을 전부 없애기 위해 닥치는 대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미래에 관한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못할 걸 알기에 더 슬퍼질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적힌 것은 웬만하면 실행에 옮기자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어코 정말로 웬만한 건 다 했더라고요. 진짜로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들이나 금전적으로 무리가 되어 못 하는 건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행히 미련을 지우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나 봅니다. 물론 저의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제 삶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작업을 도와주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작업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인물이죠.

강유성.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은 당신이 있어서 저의 어느 부분이 채워졌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옥상 난간에서 떨어져 스스로를 죽이려던 당신은, 살아서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함께 수행한 건, 당신이 유일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금전적이나 수단적인 방법으로 도와줄 뿐, 같이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없었다면 수행조차 할 수 없었으니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기억에 더 남더라고요. 결국 함께한 사람이 기억에 제일 남는 법이니까요.

돌이켜 보면 나쁜 사람도 있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좋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한없이 좋은 분이시고, 다른 집안에 비할 바 없이, 상냥한 오빠도 좋은 사람이고, 코드가 척척 맞는 친구들도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해 준 남자친구도, 한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18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없어서 버린, 빼앗겨 버린 저의 시간을 대신 살아가듯, 평안하게 살아가 주세요. 극복할 수 있는 굴곡만을 만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간직하게 될, 강유성에게.

일단, 고맙다는 말부터 할게. 네 덕분에 버킷리스트를 더 즐겁게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 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아니 일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그 정도로 넌 나한테 소중한 존재였던 거지.

만난 시간도 그렇고 사귀는 시간도 그렇고 짧았긴 했지만, 난 너를 만나서 기뻐고, 사랑했어. 남자한테 연정을 느낀 건 유감스럽게도 네가 처음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날 사랑해 준 건 네가 처음이니까 더 생각나는지도 몰라.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사실 네가 거기서 떨어지려는 의도로 그 난간에 서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걸 막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말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좀 부끄러웠는지, 내 노래를 듣고 나서 자살을 포기했을 때 거짓말을 했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미안.

그리고 네가 나와 같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놀라기도 했고, 내심 부러운 것도 있었어. 왜냐하면 난 필연적으로 죽게 되는데도 미련이 남아서 쉽사리 죽질 못하니까. 하지만 넌 아닌 것 같더라고. 세상에 더는 미련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와 동시에 너와 함께하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 같은 병에 걸려 가까운 시일 내에 죽게 될 사람을 만나니까, 조금은 동질감이 들더라. 그래서 그런지 너랑 같이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말이야.

또 한 번 말할게. 고마워. 너랑 함께하면서 즐거웠고, 너랑 사귀면서 행복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어.

그리고 부탁이 있어.

첫째, 이 노트와 버킷리스트 노트를 네가 여명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해. 딱히 이유는 없고, 가장 적당한 사람이 너일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네가 죽을 때가 되면 관 속에 같이 넣든지, 아니면 유골함 옆에 끼워놓든지, 아니면 집 한구석에 처박아 놓아도 좋아. 일단 네 소유가 되었으면 해.

둘째, 자연스레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줘. 너 같아서 아마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 살고 임의로 죽어버릴 것 같아서 하는 부탁이야. 그동안 내 버킷리스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무튼 살아줘. 아, 여명 동안 할 거 하나 추천하자면, 네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는 게 어때? 아마 생각하기 막막할 거야. 그렇다면 내가 쓴 버킷리스트를 참고해도 좋아.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죽은 뒤의 여명을 살아갈 이유도 찾게 될 테니까.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죽어줘.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니 잘 들어줬으면 해.

만약 천국이 있다면,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안녕.

2023년 2월 3일 초안 작성

2024년 2월 1일 8회차 수정

그게 마지막이었다. 뒷장을 펼쳐 볼 것도 없이, 그게 노트에서 적혀 있는 장의 맨 마지막장이었다.

생각보다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다. 세연이의 마지막 직후에, 모든 감정을 쏟아냈기에.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그 애는, 날 그렇게 생각했구나.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 애는, 이제, 진짜로 세상에 없구나.
허망의 눈물이었다.

2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버린- 밴드부 여자애가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죽을병에 걸릴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에 죽을병이 겹쳤다.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망상에만 그쳤던 그 생각이, 점차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마침내 실행에 옮기려고 들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나와 같은 병에 걸린 한 여자애를 만났다.

그 애는 병에 걸린 사실을 제외하면 나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

성별도 나와 다른 여자고, 나와 달리 하고 싶은 일도 있었다. 또 나와 달리 세상에 미련이 많았다. 미련을 지우기 위해 노트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 수행해가고 있었다.

그 애는 그걸 같이 해보자고 나에게 권했고, 나는 기꺼이 응했다. 그렇게 하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봐.

그러다가 그 애를 좋아하게 됐다.

이유는 모른다. 그저 그 애가 좋았다. 좋아한다는 게 원래 그런 법이라고 하지 않은가. 좋아하는 데에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이유가 없다면 진짜로 좋아하는 거라고.

아무튼 나는 그 애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애든 나든, 둘 중 하나는 일단 죽는다. 이별 자체가 멀지 않은 시점이었다.

죽기 직전이 되자, 그 애는 나에게도 미련을 지우려는지 임의적인 이별을 선언했다. 처음에는 기꺼이 바라는 대로 해줬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그 애를 만났다.

그러고 나서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나와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줬다. 그 애 역시 나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그러고 며칠 뒤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사별의 슬픔도 잠시, 나는 필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걸 얻을 방법을 알아내기도 했다. 책상 앞에서 적는 게 아니라, 무작정 해보는 것. 나 같이 수동적인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다행히 나에게는 그녀가 남긴 버킷리스트가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때 그 공원을 한두 바퀴 뛰면서 도는 것. 세연이가 살아 있었을 때도, 죽은 이후에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거의 빼먹지 않았던 버킷리스트의 항목이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공원길을 달리고 나서 벤치에 앉아 생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다. 기현 선배를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반가움이 넘쳤다.

“어, 유성 씨?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기현 선배 쪽이 나를 먼저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벤치로 다가와 옆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야 잘 지냈죠. 선배는요?”

“나도 잘 지내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버킷리스트, 좋은 습관이죠. 참, 그 여성분은 어떻게, 잘 지내요?”

“며칠 전에 보내줬어요.”

아, 분위기 낮아질 텐데. 한마디 더 덧붙였다.

“아, 그렇다고 막 슬프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생전에 많이 만나고 좋아했으니까.”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네요.” 아련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자, 내 가슴도 아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룰 수 없는 사랑, 왠지 일본 연애 소설의 캐치프레이즈 같다.

“오늘따라 그 애가 보고 싶네요.” 한숨을 내뿜듯 그렇게 말하고는 선배의 얼굴을 봤다. 왜일까, 선배는 울고 있었다.

“아, 미안해요. 원래 이런 걸로 잘 안 우는데. 보고 있자니 가슴 아파서.”

“…….” 그저 선배의 등을 쓰다듬고만 있었다.

“상황이 바뀌었네요. 원래는 유성 씨가 울고 내가 쓰다듬어 줘야 하는데.”

슬픈 멜로 영화라도 본 양, 선배는 조용히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다.

겨우 선배의 눈물이 진정된 모양이다. 선배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벤치에서 일어섰다.

“미안해요. 제일 슬픈 건 유성 씨일 거 아냐.”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슬프면 울 수도 있지.”

“아참, 유성 씨 내 전화번호 없죠? 폰 줘 봐요.”

스마트폰에서 전화 앱을 켜고 선배에게 건넸다. 키패드에 전화번호를 누르고 저장했다.

“자주 연락해요. 죽기 직전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줄게.”

“고마워요.”

그리고 선배가 그랬듯 나도 선배의 스마트폰에 내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선배를 또 만나게 된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둘이서 약속을 한 듯 비슷한 옷차림새로 만나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또 보네요. 운동?”

“네. 선배도?”

“건강이라도 챙겨볼까, 해서. 유성 씨는 조깅을 꼭 해왔던 모양이네요?”

“이거,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라서요.”

“역시 건강보다는 습관 형성을 위한 거겠죠?”

“따지자면 그쪽에 가깝죠.” 뭐, 버킷리스트를 계속하는 것도 습관 형성 중 하나니까 말이다.

“이렇게 된 거, 오늘 같이 땀 흘려요?”

“좋아요.”

선배는 빙그레 웃으셨다. 그러고는 내가 평소에 가지 않던 코스로 향했다.

“어라, 여긴 처음 와 보네요?”

“가끔은 새로운 것도 좋으니까요. 저도 어제는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갔거든요.”

어제부터 시작한 모양이네. 그렇다면 오늘이 2일차가 되겠지.

호흡을 가다듬고 가볍게 달린다. 이번에는 새로운 길이라서 왠지 기대도 된다.

어느 정도 달리다가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연주하는 소리였다. 악곡이 뭐더라. <플라워 댄스>던가. 동양풍의 아련한 곡조다.

“선배, 이 근처에 피아노 있어요?”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선배에게 물어보았다.

“있던 것 같던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걸음을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옮겼다. 수풀 같은 곳에 벤치 없는 정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 다채롭게 채색된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있었다. 그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던 사람은 근처 대학의 과잠을 입은 여자였다. 꽤 예쁘다고는 생각되었지만, 내 스타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연주가 다 끝나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피아노를 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저기, 우리 안 칠 건데, 치실 거면 계속 치셔도 돼요.” 선배가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아뇨, 시간이 다 돼서.”

“아...”

여자애는 그렇게 말하고 가던 길을 갔다. 선배는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저 여자, 관심 있어요?”

기습적으로 그렇게 물으니 선배는 화들짝 놀라면서 “아네요, 그런 거.”라며 부정했다.

“그, 피아노 칠 줄 알아요?”

황급히 화제를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다 드러나는 선배의 물음에 나는 씩 웃어 보이고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예전에 밴드부에서 활동해서요. 조금은 칠 줄은 아는데.”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에 손가락을 올렸다. 업라이트 피아노라,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녔을 때가 마지막이려나. C4 건반을 눌러보니 확실히 디지털 피아노와는 타건감이 달랐다.

뭘, 상관은 없겠지.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 법이니까. 그런 생각을 머금고 피아노를 연주했다. 미국의 어느 작곡가가 작곡한 <Last Dance>. 선배는 처음 듣는 눈치였지만, 그럭저럭 진중하게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분위기가 진지하고, 무겁고, 슬픈 분위기니까.

선율이 모두 연주되니 분위기는 확실히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딘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잘 들었어요. 무슨 곡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Last Dance>요.”

“제목도 역시 우울한 분위기를 암시하네요.”

그렇다. 시작부터 단조로 시작해서 우울한 분위기를 이어가니까. 우울함 투성이인 곡이다. 그런 쓸쓸한 분위기에는 어딘가의 방향성이 존재하기에, 그리 불안정한 곡은 아니다. 작곡가의 그런 의도가, 나에게 닿았다.

“하지만 우울하다고 해서 불안정하지도 않네요.”

선배도 곡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나와 같은 비평을 내렸다.

“예술이 바로 이런 걸까요? 재밌네요.”

흥미로운 눈길로 선배가 그렇게 말했다.

그 뒤로 근처 벤치에 앉아 예술에 관해서나 인생에 관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선배의 인생관은 분명, 내가 더 살 수만 있었다면 정말 좋은 조언이 되었을 거다. 방향한답시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부딪혀 봐라. 이런 거였다.

“아, 미안해요. 그런 애긴 좀 그랬나?”

자신의 인생관을 펼치다가 갑자기 실수라도 한 양 선배는 사과했다.

“아뇨, 괜찮아요.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 이따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가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아, 선배—”

뒤를 돌아서 가려는 선배를 붙잡고서는, 마지막인 양 말했다. 선배는 잠시 멈칫하곤 뒤를 돌아보았다.

“열심히 살아주세요. 제 몫까지.”

선배는 말없이 미소만을 지었다.

선배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선배가 갔던 길의 반대쪽으로 갔다.

꿈을 꾸었다. 세연이가 죽고 나서는 처음으로 꾸는, 하민이와 관련한 꿈이었다.

세연이와 사귀고 나서도, 그리고 세연이가 죽고 나서도 꿈에서 하민이가 나온 일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났다.

“요즘은 잘 지내?”

“응, 확실히.”

“이번에는 확답이네?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목표만큼은 찾을 수 있었어.”

“축하해. 내가 원한 게 바로 그거야.”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나에게 닿았다. 그것을, 그녀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꿈인 데도, 표정만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고마워. 네 덕분이지.”

“아니, 네 옆에 있던 그 여자애의 영향이 더 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네가 수행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

“겸손하기까지 하시네.”

“하하.” 호탕하게 웃는 하민이의 손에는 적당히 채워진 소주잔이 들려 있었다. 어느새 이곳은 하얀 배경이 아닌 웅성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고깃집이었다. 내 앞에도 적당히 채워진 소주잔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이 놓여 있었다.

“마셔. 어차피 꿈이니깐 뭐든 될 거 아냐.”

꿈속에 있던 하민이가, 이곳이 꿈이라고 직접 말했다. 그런데도 나는 꿈에서 깨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다.

“꿈이었구나.”

“응, 꿈이야. 이미 죽어버린 나랑 만나려면 방법이 꿈이랑 죽는 거 말고는 없잖아.”

“그렇기도 해.”

“같이 건배할래?”

나는 말없이 잔을 내밀었다. 째, 잔이 경쾌하게 울림과 동시에, 잔에 있는 소주를 모두 입으로 털어 넣었다. 소주를 마셔본 기억이 조금은 있었기에, 소주 특유의 쓴맛과 향이 느껴졌다.

“너랑 이렇게 술 마실 일도 생기고, 기분 참 묘하다아.”

“열심히 살아. 나중에 후회 말고.”

“고맙다.”

하민이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손을 맞잡았다. 이윽고 하민이는, 또 다른 나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참 묘한 꿈이다.

묘하면서도, 아련한 꿈이다.

3

날이 풀려서 선선해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벚꽃이 피는 사월이 되었고, 나도 어느 정도 몸이 부식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다.

버스를 타고 조금 먼 곳으로 가려고 한다. 조용하면서도, 어느 정도 아련한 분위기가 있는 장소다. 그런 분위기이기에 검은 정장을 입고 찾아가 본다.

외곽으로 떠나는 사람은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과, 초등학교 정도로 보이는 남녀 한 쌍, 그리고 화사한 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 옷을 입은 내가 있었다. 초등학교들은 자기 들끼리 소곤소곤 떠들고 있었고, 할머니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버스 내부 풍경에서 눈을 떼고 밖으로 향해 본다. 시내 외곽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시골과 비슷한 풍경이다. 도로변에 건물은 1~2층 정도고, 간판들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빠- 하차벨을 누르고 정류장에서 내렸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걸어가며 많은 생각이 든다. ‘오늘 저녁 뭐 먹지?’와 같은 사소한 생각부터, ‘그 애를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데, 만약 만나게 된다면 그 애는 뭐라고 말할까?’와 같은 조금 무거운 생각까지. 글썽, 그건 나중에 듣기로 하자. 지금 그 애한테 가고 있잖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찾아가 본 적 없는 봉안당은 겨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위치나 인테리어 같은 게 변한 건 아니라서 낯설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다.

그 애는 3층에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애를 기린다는 마음에 조금은 들떠 있었다. 그랬던 지라 엘리베이터에 나와 바로 그 애가 있는 곳으로 갔다.

오늘, 처음으로 그 애에게 말을 걸어본다. 응답이 있을 리 없는데도, 그저 나는 속으로 그 애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네가 사라진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어. 이쯤 되면 널 다시 만나러 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와

봤어. 참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 참 아련하네.

그래, 네 덕분에 참 많은 걸 얻어갔어. 짧디짧은 인생이라서, 그래서 잿빛 같은 인생이었지만, 말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게 떠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아, 이러니까 떠나기 싫다. 네 바람대로 최대한 오래 살다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몸이 따라주질 않네.

요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어. 기운이 거의 없기도 하고, 매일 아침 두통이 찾아와. 넌 이런 걸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하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나 같은 정도가 되었을 때, 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해.

내가 부럽다. 나처럼 이렇게 잿빛 같은 인생이지도 않았고, 바보처럼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몰라서 시간을 버리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곁에 있어 주기도 했고. 죽기 직전에 힘이 빠져갈 때쯤에, 내가 옆에 있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어. 그러다 보니 먼저 떠나간 네가 밍다는 생각도 자주 했고.

아냐. 네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게 더 좋은 거지. 차라리 이런 슬픔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이제는 ‘아련한 정도’지만, 예전에는 네 말을 무시하고 그냥 널 따라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어. 그래도 네가 부탁한 거다 보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살아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네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일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가 없어진 이후로 마음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 그걸 어떻게 메웠는지 알아? 네가 남긴 것들로 메웠어. 그 있잖아, 〈버킷리스트〉 노트. 그거 덕분에 마음이 서서히 메꿔지긴 하더라고. 떠날 때 남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남겨놓았다고 생각하니까, 준비성은 참 철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쯤 말하면 예전부터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전한 것 같아.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자. 꿈에 한 번쯤 나와줘. 꿈에서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땐 술 한잔을 마시든, 끝없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걷든 하면서, 얘기나 나눠보고 싶어.

또 올게, 안녕.

종장

1

몸과 환자감시장치가 전선을 통해 이어져 있다. 뻘- 뻘- 하는 소리가 나 혼자 있는 중환자실 전체에 울린다. 코와 입에는 산소호흡기가 달려 있다.

전신에 기운이 사라진 지는 오래고, 두통이 극심해 진통제가 없으면 미칠 지경이다. 요즘 따라 잠을 자주 잔다.

-이제 마지막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겠지.

의사들이 다가와 내 상태를 체크하고, 부모님을 불렀다. 눈물범벅이 된 부모님은 내 양손을 맞잡고 내 이름을 부른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세연이를 보냈을 때보다 훨씬 큰 고통이라는 건 알고 있다. 더군다나 난 외동아들이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마. 어차피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어. 저 의사들도, 엄마도, 아빠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도, 100살 먹은 할아버지도. 난 순리를 따르는 거잖아.”

힘을 끌어모아 부모님께 한 단어, 한 단어 힘줘서 말했다. 내 말에 부모님은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 슬픈 영화를 보실 때도 울긴 하시지만 감추시던 아빠의 눈물이, 내 얼굴에 툭툭 떨어진다. 나에게는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지라, 힘겹게 미소만 지어볼 뿐이었다.

뻘, 뻘, 뻘, 뻘, 뻘, 뻘, 뻘…….

부모님이 오시고 한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급격히 정신이 몽롱해진다. 잠이 오는 느낌이 아니다.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에는 힘이 축 빠진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스르륵, 눈이 감긴다. 귀에서는 부모님의 울부짖음과, 다급해진 환자감시장치 소리가 들려온다. 점점 귀가 멀어져 가는 가운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했어.”

많이 들어본 목소리다. 고등학생 정도의 여자 목소리. 아, 그리워했던 목소리다.

-이세연.

마음속으로 이름을 크게 불러본다.

“나 없는 동안 어땠어?”

“처음에는 괴로웠지. 근데 뭐,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나아지더라. 네 덕분에 버킷리스트도 해보게 되고, 인생의 목표도 만들었어. 고마워.”

“후훗-” 대견하다는 듯이 말하는 세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지키느라 수고했고.”

“미안, 더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

“뭐,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그럼, 이제 갈까?”

“응.”

빠이-----

〈完〉